

드리미학교 사례 연구 보고서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연구자:	고유석 김세연 박초연 신서연 신채원 오주영 윤주안 윤창민 정우진 지윤서 허윤진
지도교사:	김수홍

머리말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드리미학교 구성원 모두가 그 답을 알고 있는 듯 하지만, 막상 대답하려면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이 100이라면, 교사 개인으로서는 한 학생의 전체 경험과 5%정도의 접점만 가질 뿐입니다. 교사들 몇 명이 합쳐야 30%정도 알 수 있을까요? 나머지 70%,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학생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모든 활동이 겹치지 않는 이상, 다른 친구의 경험을 모두 접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매력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11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수업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지금까지 드리미학교에서 가장 의미있었던 경험은 무엇인지, 내가 드리미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무엇인지,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기 위해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나누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읽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끼리의 파일럿 연구를 통해 연구질문에 대한 사전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서 책의 일부분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연구문제를 정하고,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연구문제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두세 시간을 고민하며, 또 본인이 정말 궁금해하는 연구문제 한 문장을 정하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연구문제를 정할 때, 각기 원하는 질문을 하기 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합쳐서 해도 될 것 같은 연구문제인데, 본인들은 단어와 뉘앙스까지 고려해가며 서로 다른 길 가기로 정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는 욕구가 컸지요. 역시 드리미!) 칠판에 한 가득 글씨를 쓰며 연구질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의 개념을 고민하고, 질문에 맞는 인터뷰를 잘 할 수 있을지 몰라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들어가서는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눈 후 활짝 웃으며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 하기를 꺼렸지만, 막상 인터뷰이가 되어 이야기를 나눈 것의 기쁨을 전하는 학생도 있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인터뷰이의 저 깊은 곳의 답변까지 끌어올리는 두레박 같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30분 분량의 인터뷰를 글로 적는데 한시간 반을 들이고, 인터뷰이를 확보하기 위해 은근 눈치작전도 벌이고, 차근차근 배우지 못한 연구보고서 작성을 모방을 통해서 배우고 또 써내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다른 친구들의 인터뷰를 읽어보았습니다. 연구보고서에서 스스로 발견했던 것 처럼, 이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진심'이었을까요? 제가 이들을 보면서 발견한 것은 '애정'입니다. 이들은 알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무엇을 경험할까? 그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신앙적으로는 잘 성장하고 있을까? 공동체에는 잘 스며들고 있을까? 자신의 역할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까? 학교생활에 얼마나 만족할까? 스스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이런 질문에는 안타까움도 배어있습니다. 자신이 공동체를 통해서 느낀 기쁨을 자기만큼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을 자기만큼 즐기지 못하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해석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들의 연구결과가 담긴 이 보고서를 읽으시면서 이들이 ‘진심’이었던 나름의 이유를 발견하시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속단은 금물,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 본 것은 아니니까요!

멋진 연구자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가슴 뛰었던 지도교사 김수홍 쌤.

목 차

1장. 연구소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쪽
2. 연구진행	6쪽
3. 드리미학교	6쪽
2장. 개별연구	
연구1: 드리미학교의 교육을 즐기게 하는 공식/비공식 요인은 무엇인가?	15쪽
연구2: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왜, 어떻게 변화되는가?	32쪽
연구3: 드리미학교에서 적극적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	42쪽
연구4: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역할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2쪽
연구5: 드리미학교 친구들의 신앙은 잘 성장하고 있는가?	65쪽
연구6: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소속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76쪽
연구7: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성장을 인지하며 살아가는가?	87쪽
참고문헌 및 부록	94쪽

1장. 연구소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은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결정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아는 것은, 그들의 성장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드리미학교는 성장의 지향점이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라는 점, 그리고 학생 개인별로 각각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의 경험을 알아봄으로써 그 경험 속에 내재한 성장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진행

‘드리미학교 사례연구’라는 이름의 선택활동에는 1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가장 의미있었던 경험, 드리미학교의 인재상, 학교에 대해 궁금한 것, 성장을 유추하기 위한 하위 주제들 등 학생들과 각자의 드리미학교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11명의 학생들 내에서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인터뷰를 통해서 답해보는 파일럿 연구를 했다.

세 팀으로 나누어, 각 팀에서 연구문제를 알아내기 위한 세부 인터뷰질문을 만들고, 기독교 대안학교에서의 성장에 관한 연구논문을 읽고, 다른 팀원들을 인터뷰하고, 녹취록을 만들고 분석까지 해보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각자가 연구문제를 정하고 개별적으로 혹은 팀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적합한 인터뷰 대상자를 찾기 위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만족도, 신앙성장, 의미있는 경험 등 16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설문에 기초하여 각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질문에 적합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 연구에서 적게는 4명, 많게는 10명을 인터뷰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녹음하고, 전사되어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¹.

3. 드리미학교 소개

1) 교육철학 및 목적

‘만약 대한민국에 입시가 없다면 고등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질문을 기반으로 학교 설립 2년 전부터 학교 이사장 및 예비교사들이 모여 어떤 학교를 설립할 지 논의가 있었고, 2019년 3월4일, 충남 천안의 병천면, 전 아우내 중학교 자리에서 46명의 신입생과 함께 드리미학교가 개교하였다.

드리미학교는 현대의 교육이 많은 학생들을 고통으로 밀어넣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설립자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만들어 깊이 있고 폭넓은 신앙교육을 하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배움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배움터가 필요하다고

¹ 11명의 연구자들은 총 69회의 인터뷰를 통해, A4지 307장, 약 28만 자의 녹취자료를 생성하였다.

판단하였고 그렇게 설립된 본교는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교이다.

드리미학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 6:33)의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공이 아닌, 섬김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이처럼 신앙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보다 쉽게 신앙 고민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신앙을 성장시키고 있다. 또한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차원을 넘어 깊은 유대감을 쌓으며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쌓아간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각자의 소명을 찾아가도록, 깊고 폭 넓은 배움을 통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드리미학교의 인재상은 ‘성공이 아닌 섬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드리미학교의 인재상이다. 또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섬길 수 있으며, 공동체가 올바르게 못한 길로 갈 때 바로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드리미학교의 비전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 드리미학교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배운 교육을 세상에 나가서도 실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학생들이 세계 여러 곳에 또 다른 드리미학교를 세우는 것이 드리미학교의 가장 큰 비전이다.

2) 교육과정

드리미학교는 공교육의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교육을 이뤄내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 중에서도 몇 안되는 입시에서 벗어나 획일적인 교육을 이뤄내고 있는 학교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주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나갈 때 드리미학교 교육의 기본 베이스가 되고 있는 교육이념을 알고 넘어가는 것은 필수일 것이다. 드리미학교는 3가지의 대표적인 교육이념과 함께 2019년 개교하였다. 3가지의 대표 교육이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드리미학교는 성경에 충실한 학교이다.

둘째, 드리미학교는 5無 3P의 원리로 배우는 학교이다.

셋째, 드리미학교는 다섯 가지가 없는 학교이다. (5不容)

드리미학교는 이 3가지 교육이념을 항상 강조하며,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하기에 획일적이지 않을 수 있고 더 차원 높은 교육을 이뤄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가. 5無 (없을 무)

無학년 - 학년을 통합한 공동체적 교육

無교과 - 교과를 넘어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교육
 無교과서 - 교과서를 넘어 모든 창조세계를 탐구하는 교육
 無획일 - 학생 고유의 개성과 흥미를 존중하는 교육
 無경쟁 -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섬김을 실천하는 교육

“어떤 교육을 할 지에 앞서 어떤 교육을 안할 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드리미학교는 학년, 교과, 교과서, 획일, 경쟁이 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 신앙을 제외하곤 학년이 없이 통합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과와 교과서 없이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 배움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정해진 커리큘럼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성적이라는 틀 안에서 학생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성을 강조하며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배움을 나누고 그 나누는 과정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기존의 교육에서 이 5가지를 뺀 것은 굉장히 큰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 5가지가 없어진 덕분에 틀을 깨고 더 다양하고 더 수준높은 배움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나. 3P란?

Play - 자유롭고 즐거운 놀이로서의 배움
 Performance -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서의 배움
 Practice - 실천적 삶으로서의 배움

드리미학교의 교육은 5無를 바탕으로 한 3P활동으로 이뤄져있다. 3P는 Play, Performance, Practice로 나뉘어져있는데 Play는 학생들이 자유롭고 즐거운 놀이로서의 배움, 즉 자신의 흥미를 찾고 탐구하는 과정을 놀이처럼 즐기며 찾는 과정을 뜻하며 Performance는 흥미를 기반으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 Practice는 그렇게 2단계를 거치며 배운 것을 실천하는 단계를 의미하고 있다. 이 3단계의 3P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 커리큘럼은 3P 선택활동과 3P 창의활동으로 나뉜다.

다. 3P 선택활동

3P 선택활동은 교사가 개설하는 3P활동이다. 일반학교와는 다르게 3P 선택활동은 교과가 정해져있지 않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정말 다양한 수업들을 교사들이 개설하고 있으며 매년 신입생들의 첫 학기에 필수로 들어야하는 기초소양 외에는 학생들의 선택에 제한을 두지도 않는다. 마치 대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듯이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교사들이 개설한 선택활동을 체험하는 Play 시간을 거치며 직접 수강신청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강이 되었을 때 수업이 이뤄질 수 있기에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수업은 폐강을 할 수도 있다.

또한 3P 선택활동은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교육을 이뤄내고 있으며 교사 개설 수업이긴 하지만 수업 내 많은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있어 보다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수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앉아서 듣는 교사 중심적 수업이라기 보다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기에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적극성을 성장시키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3P 창의활동

3P 창의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개설하는 3P활동이다. 학생들이 직접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실제 수업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배우며 한 학기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 끝까지 학생 스스로가 진행을 하고 있다.

수업을 학생 개개인의 관심, 비전, 사명에 따라 기획해나가기에 매 학기마다, 매 년마다 정말 다양한 수업이 개설되고 있다. 2021년까지 총 124개의 창의활동이 개설된 정도이다.

창의활동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교사는 멘토의 역할을 한다. 외부 기관, 전문과의 연결, 자료 지원, 조인 등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창의활동은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이 시작되며 계획서에는 활동명, 팀원, 개요, 의미있는 청중, 자료, 활동내용, 평가로 이뤄져있다. 계획서를 작성하고 창의활동을 진행하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기에 선배들과 선생님들이 신입생들에게 여러차례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사. 5不容과 5개의 가치

거짓말 -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을 가르친다.

절도 - 도둑질하지 않는 정의를 가르친다.

술·담배 - 술·담배를 하지 않는 절제를 가르친다.

성적 타락 -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성결을 가르친다.

폭력 - 타인을 아프게 하지 않는 평화를 가르친다.

드리미학교에는 여러 규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강조하는 5가지 어기면 안되는 규칙이 있다. 이를 드리미학교에서는 5불용이라고 하는데 5불용에 해당되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 모든 학사일정이 중단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이틀동안 금식에 들어가며 회개금식 기간이 끝나면 100km 행군에 들어간다. 여기서 이틀동안의 회개금식 기간동안 제대로 된 회개가 안이뤄졌다고 판단이 들면 이틀이 연장이 되며 이런식으로 일주일이면 폐교에 이른다.

5불용을 통한 회개금식 기간과 100km 행군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하나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금식과 행군이 주는 육체적 고통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회개를 하는 시간이 주는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배움을 얻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5불용 규정을 통하여 공동체에 대해 한 층 깊게 들어가는 계기를 얻어간다.

5불용은 5가지를 어기지 말라는 것도 강조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내포되어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5가지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5가지는 위에 나와있는 것처럼 정직, 정의, 절제, 성결, 평화이다. 애터미의 회장이자 박한길 이사장이 말하는 드리미학교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 둘째, 거듭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
- 셋째, 주님의 명령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3가지의 사명을 지키며 서로를 평생 동역자로 만나게 된다.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 신뢰가 필요하며 그 믿음과 신뢰를 깨버리는 불신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러한 불신을 5불용을 지킴으로써, 공동체를 위해서 인내하고 공동체 안에 스며드는 과정을 통해 5가지 가치를 배우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천이자 내 곁의 친구들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5불용은 드리미학교에서의 특별한 메리트이자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서로의 동역자가 되기 위한 표지판이라고 볼 수 있다.

아. 빛음

빛음은 한 학기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통해 입학한 하게 된 학생들이 드리미인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빛음은 크게 4가지의 영역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

- 첫째, 신앙 -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기
- 둘째, 삶 -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고 건전한 삶의 습관과 섬김의 태도 형성하기
- 셋째, 공동체 - 섬김의 태도를 바탕으로 사랑과 책임의 공동체 만들기
- 넷째, 배움 - 사랑과 책임의 공동체성을 갖고 자기주도적인 배움의 역량 개발하기

한 학기동안 선배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신입생들은 4가지의 주제로 다양한 수업을 듣고 활동을 하게 된다. 언어사용, 성교육, 사명선언문 작성, 차원의 의미, 승승마인드 등 크리스천으로서 필요한 교육 혹은 드리미학교 학생으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다. 2022년부터는 학생 참여의 비중이 더욱 늘게 되어 선배들과 후배들의 교제가 이를 통해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빛음은 드리미학교가 다른 기독교대안학교들에 비해 특이점이 있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일과표

시 간	활 동
7:00 - 8:30	아침 운동 / 세면 / 아침 식사
8:50 - 9:20	이음예배

9:20 - 11:50	3P선택활동 / 신앙 / 밴드활동 / 청소
11:50 - 13:30	영어 / 합창 / 점심 식사
13:30 - 17:00	3P선택활동 / 3P창의활동 / 체육 / 노작 / 밴드활동
17:00 - 18:00	자율활동
18:00 - 19:00	저녁 식사
19:00 - 22:00	자율활동 / 다함 예배
22:00 - 23:00	청소 / 점호 / 영성 일기 / 성경 읽기 / 개인 기도
23:00	취침 / 야간 자율학습

학교 일정으로는 아침 7시 기상으로 일과를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아침운동부터 이음예배, 신앙수업, 선택활동, 창의활동, 영어수업, 체육, 노작, 밴드활동 등이 이뤄지고 있다. 5시부터 기숙사 입실 전(오후10:00)까지는 자율활동 시간이며 감독 선생님과 지정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말에는 주일예배 시간(오후 2:00~3:30)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자율 활동시간이다. 자율활동 시간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 과제 혹은 자기개발을 하고 동아리, 학생회, 찬양팀 등 여러 그룹 모임 시간을 가진다.

3) 학생자치기구

가. 학생회

드리미학교에는 학생자치기구가 있으며 학생회와 대의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회에는 문화콘텐츠부서, 복지부서, 생활자치부서, 체육부서, 환경관리부서가 속해 있으며 각 부서별로 학생회 임원이 부서장을 맡아 부원들과 함께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회 내의 부서들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학생회에서는 드리미학교의 올바른 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하고, 학생과 선생님 간의 중간 다리로서 선생님과 긴밀한 소통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건의를 받아 해결하고, 찬양집회, 기도회, MT, 공동체 활동 등의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며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자치기구이다.

나.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규정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며 만들어나가는 학생자치기구이다. 드리미학교의 규정은 학교 생활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규정은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약속이며 이를 통해 드리미학교의 생활교육에서 강조하는 자율과

책임, 그리고 드리미학교의 가치란 무엇인지 배워나간다. 학생들이 함께 공동체 내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마을 반상회 시간 등을 이용해 공동체가 함께 결론을 도출한다.

또한 대의원회는 규정에 대해 제정·개정의 역할을 맡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규정들을 선생님들, 학생들과 함께 소통을 통해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며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공동체의 수준과 문화에 맞지 않다면 삭제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의원회는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드리미학교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길 장려하는, 학생들 스스로 학교의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돕는 학생자치기구이다.

4) 물리적 환경

드리미학교는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에 위치한 기독교 대안학교이다. 공식적으로는 애터미 인재개발원 연수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학교 시설로는 배움관, 창의관, 생활관, 체육관, 교직원 숙소 등이 있다.

배움관	교실(중4, 소18), 미술실(2), IT실(1), 과학실(1), 보건실, 교무실(2), 회의실(1), 라운지, 영상촬영 스튜디오
창의관	Playsquare, Cafe, 음악실(6), 조리실, 베이킹실, 영상부스
생활관	학생 숙소(208명 수용), 식당, Cafe, 도서관, 라운지, 야외 라운지
체육관	실내수영장(25m*5), 실내농구장, 배드민턴장, 스쿼시, 실내스크린골프(3 set), 헬스장(2), 탁구장, GX Room
기타시설	음악녹음 스튜디오, 목공실, 인조잔디 축구장, 야외 농구장, 야외 배구장, 유도실, 마방, 원형 마장, 대마장
교직원 숙소	연립형(16), 주택형(5)

(2022년도 기준 학교 시설 현황)

배움관은 말그대로 배움이 일어나는 곳으로 크고 작은 22개의 교실과 라운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술실, 과학실, IT 실, 교무실, 회의실 등이 있다. 창의관은 학생들의 창의활동을 더욱 돕는 곳으로 플레이스퀘어(Playsquare), 영상부스, 카페, 베이킹실, 음악실이 있다. 플레이스퀘어(Playsquare)는 다함예배, 주일예배를 드리는 곳이자 강의, 공연, 집회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복합 공간으로 이곳에 영상 부스도 함께 있다. 체육관에는 실내스크린 골프장, 탁구장, 헬스장, 농구장, 안무연습실, 실내수영장 등이 있고 생활관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를 말하며 4인실로 208명이 수용

가능하다. 생활관에는 도서관, 식당, 야외 라운지 등이 있다. 기타시설로 목공실, 유도실, 야외 축구, 농구, 배구장,마방, 원형마장, 대마장이 있다.

2장. 개별연구

각 보고서는 하나의 완결된 연구물이다. 기본적인 차례는 I.서론, II.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결론이며, 각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1: 드리미학교의 교육을 즐기게 하는 공식/비공식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2: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왜, 어떻게 변화되는가?

연구3: 드리미학교에서 적극적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4: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역할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구5: 드리미학교 친구들의 신앙은 잘 성장하고 있는가?

연구6: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소속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연구7: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성장을 인지하며 살아가는가?

참고문헌 및 부록

1. 연구1: 드리미학교의 교육을 즐기게 하는 공식/비공식 요인은 무엇인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환경 중 하나로, 지식, 기술, 대인관계 등과 같이 인지적 및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참여가 반드시 심리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 입시지옥으로까지 불리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을 고려해볼 때 학생들은 더 나은 학업 성취만을 지향하는 경쟁적 분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따라서 자발적으로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가지고 참여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이런 현실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의 적응과 자발적 참여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하게 한다.

드리미학교의 학생들을 보면, 24시간을 이용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과제 외에도 영상팀, 사진팀, 찬양팀, 학생자치기구, 동아리 등 다른 학교에 비해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참여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나는 학생들의 참여도와 더불어 일반학교와는 다른 어느 것을 드리미학교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선 ‘학교의 교육을 즐기는 것’이었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이곳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가는가? 드리미학교에서는 어떤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기에, 학생들이 이렇게도 즐길 수 있을까?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3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은 알겠지만, 정확히 학생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넘어 직접 학교에서 생활한 학생들의 경험과,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변화한 것에 대한 비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이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학생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비공식적인 자료에서 오는 학생들의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드리미학교의 교육을 즐기게 하는 공식 / 비공식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3. 연구문제 개념설명

가. 학교 참여

학교 참여(school engagement)란 학교, 교사,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말한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 교사나 친구들과의 연대감, 학교를 알고 받아들이고 동일시하는

유대감을 의미하고 있다. 학교 참여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와 관련된 일이나 학교를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자신의 노력과 시간, 에너지를 투자한다.

학교 참여는 크게 정서적 참여, 행동적 참여, 인지적 참여로 구성한다. 정서적 참여는 학생 개인이 학교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감을 나타낸다. 행동적 참여는 학교, 학업, 학교내 활동, 규율 준수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인지적 참여는 학업에 대한 몰입정도와 학습과 과제 수행에 있어서 높은 의지로 드러나게 된다.

나. '즐거다'의 조작적 정의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드리미학교의 교육을 즐기게 하는 공식 / 비공식적인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즐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즐긴다는 것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들어가기 전에 즐거움의 의미를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즐거다'라는 동사는 재미를 맛보다. 또는 좋아서 기꺼이 하다. 즐거움을 느끼며 행하다.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즐거움의 사전적 의미와 같이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드리미학교의 교육을 즐기고, 좋아서 기꺼이 하게 만드는 요인인지 알아보게 될 것이다. 다만 즐긴다는 것에는 그저 좋고, 놀고,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연구에서 즐긴다는 것은 드리미학교의 교육에 진심으로 참여하고, 드리미학교에 대해 잘 알고, 학교의 가치에 동의하며, 드리미 학교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변화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공식 / 비공식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선정

본 연구는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큰 주제에서 '드리미학교의 교육을 즐기게 하는 공식 / 비공식적인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 대상은 드리미학교의 다니고 있는 재학생 혹은 졸업생, 드리미학교의 교사들이 연구의 대상이다. 드리미학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론적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자료 수집 방법 (심층면접/참여관찰/문서, 영상자료 등)

가. 전체 설문지

본 연구는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연구가 아니라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큰 주제에서 파생된 여러 질문들을 연구하는 공통 연구이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고, 원하는 만큼의 인터뷰 횟수를 채우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드리미학교의 재학생 수는 55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인터뷰가 여러 번 겹칠 시, 인터뷰 대상이 느끼게 될 시간적/심리적 부담감을 고려해야만 했다. 보다 인터뷰 대상의 선정 기준을 필요로 했다.

심층면접을 하기 전 단계로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참여도, 자발성, 신앙, 만족도, 성장, 공동체성, 변화 등의 주제로 나누어 드리미학교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간단한 객관식, 주관식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전교생 55명 중 총 50명이 응답했으며, 졸업생 7명이 응답해주었다.

나. 심층 면접 (인터뷰)

전체 설문지의 응답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연구의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였다. 특히 설문지의 내용 중 참여도, 자발성, 만족도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선정 후보가 되었다. 인터뷰 응답 대상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드리미학교의 교육을 즐기고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 학교생활 중 학생자치기구 혹은 학교 동아리 등 자기주도적인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참고하였지만 참여 종류나 횟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드리미학교의 교육을 즐기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했기 때문에 설문지 응답이 대상 선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 가지 더할 것은 본 연구의 연구자 또한 드리미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인터뷰 대상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인터뷰이와의 개인적인 관계나, 그간 나누었던 대화들은 모두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재학생들과는 학교 내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졸업생과는 zoom과 같은 화상통화를 이용하기도 했다. 인터뷰 진행 시에는 녹음하고, 후에 모두 전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인터뷰는 연구 질문에 따른 질문지를 사용하여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의 내용은 크게 기본 질문, 핵심 질문, 마무리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 질문에서는 드리미학교에서의 가장 소중한 경험과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핵심 질문에서는 드리미학교의 교육과 겪게 되는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들과 학생들이

드리미학교의 교육을 즐길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질문과 반대로 즐기 못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마무리 질문은 나에게 있어 드리미학교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정리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1) 인터뷰이 정보

인터뷰이 이름	기수	기타
1번 인터뷰이	1기	드리미학교 학생회 직책
2번 인터뷰이	1기	드리미학교 학생회 직책
3번 인터뷰이	2기	드리미학교 학생회 직책
4번 인터뷰이	2기	드리미학교에 오기 전과 후의 변화가 잘 보임.
5번 인터뷰이	3기	인터뷰 내용에 답해줄 수 있는 만한 경험을 많이 함.

2) 인터뷰 질문

질문	내용
필수질문	드리미학교에서의 가장 소중한 경험은 무엇인가요?
	드리미학교에서 얻은 것 중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그것을 어떻게 얻었나요?
핵심질문	드리미학교에서 즐거웠던, 열심히 했던, 의미있었던, 기억에 남는 활동을 이야기해주세요.
	가장 큰 배움(신앙), 가장 큰 도전(배움), 가장 큰 변화(삶), 가장 큰 경험(공동체)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학교의 교육을 즐기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타질문	학교의 교육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 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무리 질문	나에게 드리미학교란?
	주제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 없나요? 더 이야기해줄 것 없나요?

3. 분석방법

질적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연구자가 보고, 듣고, 읽은 것을 조직함으로 배운 것을 이해해가는 과정으로, 대개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Glesne, 2006).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유목화하고, 종합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해석한다. 이런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대개 자료에 이름을 붙이고 카테고리를 나누면서 자료를 조직화하여 코드화하는 ‘초기 자료 분석’과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 “코드의 광산”으로 들어가서 코드를 분류하며 범주화하여 정의를 내리고 해석해 가는 ‘후기 자료 분석’으로 구분된다.

III. 연구결과

연구결과에 대해 적기 전에 먼저 이야기 하고 싶은 점은 드리미학교의 교육을 즐기게 하는 요인에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드리미학교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분명 드리미학교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그것만 모두 설명하기에도 오랜 설명이 필요할 만큼 깊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또 드리미학교와 학생들이 드리미학교의 가치를 지키는 데에 큰 틀과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또한 공식적인 요인을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경험과, 변화를 겪게 되는 과정과, 교육을 즐기게 되기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그 깊은 곳까지 이야기 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다.

1. 학교 생활

가. 자율시간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일과가 끝난 뒤로도 대부분 학교에서 시간을 보낸다. 하루 일과 중 공식 수업시간이 차지하는 시간이 크고, 그 시간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자율시간이 주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연구의 요인 중 비공식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자율시간에 즐기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볼 수 있었는데 먼저는 베이스, 일렉, 통기타, 드럼, 피아노와 같은 악기 연습이었다. 실제로 드리미학교에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다. 원래부터 악기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도 있지만, 입학 후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다. 학교 안에 악기들이 구비되어 있고, 드리미학교 내에서 교내 찬양팀이 존재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찬양팀 연습을 하거나, 찬양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이외에도 따로 악기 동호회를 만들어 모여서 연습하고,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거나 독학하는 등 악기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다. 드리미학교의 자율시간에는 음악실에 언제나 불이 켜져있고, 학교를 돌아다니다보면 학생들의 악기 연주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다.

그 다음으로는 승마, 골프, 농구, 헬스, 축구와 같은 운동이었다. 드리미학교에는 운동장, 승마장, 농구장, 탁구장, 수영장, 스크린 골프장, 헬스장 등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운동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은 평소에 배우기 쉽지 않은 승마나 골프와 같은 스포츠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인바디 체크를 통해 건강한 몸의 변화를 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자율시간에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영상 편집, 그림, 책 읽기, 베이킹, 관심 분야 공부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다.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취미생활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자율시간을 의미없이 보내지 않고 건강한 취미생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나. 학교 교육과정

드리미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루의 일과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보내기 때문에, 이는 연구의 요인 중 공식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활동으로 제가 심리학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되게 창의활동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진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궁금해서 공부하는 게 그게 진짜 좋았어요. 창의활동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수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고 내가 이거 진짜 알고 싶다. 이거 진짜 뭘까 해서 아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3번 인터뷰이)

드리미학교의 재학생은 드리미학교의 교육을 즐겼던 경험으로 자신의 3P 창의활동 경험을 이야기해주었다. 3P 창의활동은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한 학기의 수업 과정으로 직접 만들고 배워나가는 활동이다. 그만큼 내가 정말 관심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또 한 학기의 수업을 직접 기획하고 이루어나가는 과정은 수업에 대한 책임감과 주도성을 학생 스스로가 느끼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활동을 통해 큰 보람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여기서 배우는 교육은 삶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어. 중학교 때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당장 이걸 배워도 삶이랑 연관이 되는 건 내 꿈을 펼치기 위해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공부과정이지 내 삶이랑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어. (...) 내가 뭘하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고 공부하라고 했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여기에 오자마자 처음 학교생활하며 한 질문이 넌 뭘하고 싶어였던 것 같아. 내가 뭘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학교는 처음이었어! 내가 뭘하고 싶은지 물어봤고 뭘 잘하고 좋아하는 지를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좋아하고 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있었고 자기주도성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공동 인터뷰 참조)

이 학생은 드리미학교에 오기 전 중학교를 다녔던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었다. 이 학생은 중학교 때 배우는 공부가 자신의 삶과 연관이 있다고 느끼기보다 공교육의 과정 중 하나이며 후에 진로 선택에 있어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공부였다고 느꼈다. 성장하면서부터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물어봐주지 않은 채 그저 모두가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공부의 동기를 충분히 느끼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드리미학교의 5무에는 무학년, 무교과, 무교과서, 무경쟁에 이어 무획일이 있다. 학생 고유의 개성과 흥미를 존중하여 획일적인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하고 싶은 수업을 직접 만든 것이 의미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일반학교랑 비교했을 때 우리 학교 교육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거 말고도 다른 면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해. 지식말고도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해. 그게 큰 차이점이구. 그냥 공부해서 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 학교 수업에도 물론 영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드리미학교에서 생활하는 삶이 그 사람의 무언가를 바꾸는데 영향이 큰 것 같아. 기숙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생활도 하니까 그 속에서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해.” (공동 인터뷰 참조)

“내가 진짜 표현하고 싶은 게 뭔지를 내가 진짜 알고 하고 싶은 게 알고 싶은 게 뭔지를 꼬집어내주는 그런 여러 활동들이 있으니까 이런 수업들이 있고 그런 선생님들의 질문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걸 찾으니까 하는 것 같아.” (3번 인터뷰이)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드리미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이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느꼈다. 학생들은 드리미학교에서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넓이와 깊이의 생각을 다시 정리한다. 교육은 지식적인 공부를 넘어 삶을 배우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학생 개개인에게 있는 고유의 개성과, 흥미, 역량을 이끌어내어 자신의 배움을 보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이것을 학교의 공식 교육과정인 3P 교육과정을 통해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다. 학생주도

1) 주변 사람들의 영향

“나 혼자 있으면 절대 그냥 잠깐 하고 말았을 거라는 거. 항상 약간 선의의 라이벌이라고 해야 하나.” (1번 인터뷰이)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언급해주었다. 이 졸업생은 지난 드리미학교의 생활을 돌아보며, 친구에게 선의의 라이벌이라는 표현을 썼다. 선의의 라이벌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이는 단순한 경쟁구도로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였다면 주도적으로 하기 힘든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잡아주고 서로의 모습을 보며 동기부여의 역할을 해주며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난 학생회를 진짜 진심으로 했어. 이게 재밌는 이유가 또 그건 것 같아. 왜냐하면 학교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잖아. 뭔가 나와 이렇게 가치를 공유하는데 또 이 사람이 그 둘 다 너무 이렇게 모두가 너무 다 진심이니까 이게 또 너무 재밌고 또 서로의 그 생각을 듣고 영감을 얻고 이렇게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게 너무 뭔가 생산적이고 재밌었어.” (2번 인터뷰이)

드리미학교의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의 경험이 있는 드리미학교의 졸업생은 학생회에 참여했던 사람 모두가 진심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듣고, 영감을 얻어 발전시켜가는 과정이 재미있었다고 말해주었다.

2)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

드리미학교 곳곳에는 학생들의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학교마을반상회나 생활관자치회의와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또 MT나 입학설명회, 기숙사 점호, 찬양 인도 등 학교의 공식적인 활동까지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학교는 그만큼의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작은 것이 크게 쓰이는 경험을 한 학생들이 있었다. 이는 적은 학생수에 비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프로젝트의 양과 크고 굵직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한 사람에게 맡겨진 기대와 일의 양이 많아진 부분이 있다. 본인은 작다고 생각했던 작은 재능들이 피아노 반주나, 춤 공연, 발표에서 쓰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귀하게 사용됨을 느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거나 더 많은 부분에서 주도적인 학생이 되기도 하였다.

“내 자기주도성이 성장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하나하나 개입하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인지 봐주시면서 너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권한을 많이 주시는 거.”
(공동 인터뷰 참조)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거? 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주어진다는 거? 내 의견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공동 인터뷰 참조)

“원래 같으면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꼬치 꼬치 캐묻고 너가 그런 것 할 수 있겠니? 그게 아니라 드림미에서는 오, 그 아이디어 좋은데? 그것 발전할 수 있다. 계획 세워서 가져오면, 이 학생을 믿고 지원을 해주고.” (공동 인터뷰 참조)

인터뷰 과정 중에서 얻게 된 것은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려는 학교의 노력과 더불어 그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의견을 물어보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했다. 학생들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믿어주고, 기회를 줄수록 그 일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커졌고 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2. 신앙

드리미학교에서 신앙이란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왜냐하면 드리미학교의 설립 목적과 가치와 철학, 학생들을 교육하는 모든 부분에는 신앙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신앙에 대한 교육과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교육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음예배, 다함예배, 신앙교육, 영성 일기, 복음사경회, 신앙에세이 등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신앙은 인터뷰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 중 하나였는데, 학생들은 드리미학교에 온 후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야. 그게 제일 값진 것 같아. 어딜가든 어떤 수업이든 계속 하나님과 나와서 관계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선생님들이 뭘 하든 애들끼리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자꾸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가 오가는 거지.” (3번 인터뷰이)

“기도제목이 계속해서 좀 더 성숙해진 게 느껴졌고, 그 전에는 내 삶이 오로지 나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에 맞춰져 있다면 시선이 되게 나한테서 다른 사람으로 바뀔 거야.” (4번 인터뷰이)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나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런 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또 그분에게로 갈 걸 알기 때문에. 그 영의 전쟁 그거를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나는 열심히 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5번 인터뷰이)

이처럼 인터뷰를 통해 학교 안에서 신앙적인 교육과 문화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경험, 나에게만 맞춰져 있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제목이 된 경험, 신앙을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연습하는 경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영의 전쟁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경험 등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드리미학교에서 신앙은 단순한 교과과정을 넘어 학생들의 영혼과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 개인적 성장

인터뷰 중 학생들이 겪은 경험이 개인의 특성과 성격, 자라온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개인에게서 나타난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기. 성격변화

“성격 변화. 내가 처음에 딱 왔을 때 진짜 전혀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나를 보고 정말 극도로 소심한 사람이었고 정말 약간 모든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 (...)성격도 많이 바뀌고 말하는 방식이나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많이 변화했지.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학부모임들이 나를 보고 너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다 그러셨어.” (1번 인터뷰이)

이 학생은 드리미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에는 소심한 성격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3년간 드리미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 선생님의 응원과 공동체에서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것을 느끼면서 성격이나 말하는 방식이 많이 변화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학생은 변화한 자신을 보며 예전의 자신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했다.

나. 임기응변

“여러 가지 상황에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건 나는 솔직히 말을 하는 능력이라 생각해. 임기응변 하고 자료 만들고 약간 그런 거가 난 값어치 있다 생각해. 왜냐하면 어디서 그런 걸 할 수 있고 솔직히 그런 능력을 어디서 기르겠어. 그냥 이게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한테 나도 모르는 게 체득이 된 거잖아. 난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2번 인터뷰이)

이 학생은 드리미학교의 졸업생으로서 현재 대학교 진학 중에 있다. 인터뷰 진행 중 대학교 면접을 한 경험을 이야기해주었는데, 그 때 드리미학교에서 배웠던 발표능력과 자료 만들기, 기획하는 능력 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역량들은 다른 곳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드리미학교의 발표 수업을 굉장히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 인생의 본질

“내가 여기서 인생을 배웠거든. 드리미학교는 진짜 모든 것에 모든 편견과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모든 속임수 이런 거를 그냥 싹 다 무시하고 다 파괴해버리고 그 위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인생을 배울 수 있는 본질을 배울 수 있는 거. 그 본질로 살아가게 해. 그 본질을 동력 삼아서.”(5번 인터뷰이)

이 학생은 드리미학교 안에서 인생을 배웠다. 신앙이 전혀 없었던 이 학생은 드리미학교에서 들은 복음사경회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이 세계를 관통하는 인생의 본질을 알았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본질이 동력이 되어 자신을 살아가게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 얻은 경험들은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드리미학교의 교육과 분위기,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변화하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었다.

4. 공동체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답변은 공동체였다. 공동체를 크게 5不, 친구, 선생님, 동역자로 나누었다.

가. 5不(5불)

5不는 드리미학교의 핵심 교육과정 중 하나이다. 거짓말, 절도, 술·담배, 성적 타락, 폭력. 이 다섯 가지가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정직, 정의, 절제, 성결, 평화의 가치를 교육하고 있다. 드리미학교에서는 이 다섯 가지가 일어났을 시, 5不용이 일어났음을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고 공동체 일원 전체가 학교의 모든 활동과 교육과정을 멈춘다. 선생님들은 이틀 간 금식에 들어가고, 학생들은 개인적·공동체적으로 회개의 시간을 가진다. 이들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공동체의 회개가 보일 때에야 선생님들은 금식을 멈추고 전체 100km 행군을 시작한다. 만약 이들이 지나도 회개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채 일주일의 시간이 넘어가면 드리미학교는 폐교된다.

“5불때가 항상 제일 소중한 기억,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5불이 딱 일어나는 시기가 우리 공동체가 항상 뭔가 깨어지고 살짝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생겼거든.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이 되게 귀하다고 생각했어. 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이 기반이 되는 규정과 오불로 인해 생긴 공동체가 이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른 학교에는 없는 거잖아. 일반 학교에서는 절대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없는데 이 공동체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도 결국에는 같이 협업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1번 인터뷰이)

이 졸업생은 드리미학교 재학 중 3번의 5불을 경험했다. 3번의 5불을 통해 이것이 공동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과, 이 시기를 통해 공동체적, 신앙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느꼈다. 이 학생은 성경이 기반이 되는 규정과 오불을 경험하고 나서 생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을 뒷붙였다. 드리미학교 안에 5불이라는 교육과정이 있는 이유는 공동체 사이의 온전한 신뢰를 쌓기 위함이다. 그래서 5불이 일어났을 때 가치를 양보하거나 모른 척 넘어가지 않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엄격하고 단호하게 반응한다. 5불은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겪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5불을 겪은 학생들은 이것이 내면화가 되어 이후에 일어나는 공동체는 일반 학교와는 다른 공동체를 형성해나간다. 물론 5불이 매년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드리미학교를 졸업한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듯이 5불은 드리미학교를 드리미 공동체답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다.

연구와는 별개로, 드리미학교에서는 5불(거짓말, 절도, 술·담배, 성적 타락, 폭력)보다 다섯 가지의 가치 (정직, 정의, 절제, 성결, 평화)를 더 중요하게 교육하고 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뛰어넘은 다섯 가지의 가치를 지키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지금도 드리미학교에서는 다섯 가지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나. 친구

인터뷰를 진행했던 거의 모든 학생들이 드리미학교의 교육을 즐기는 요인으로 친구를 이야기해주었다. 드리미학교에서 친구가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많은 곳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드리미학교는 기숙사형 학교이고 학생수가 적어서 하루종일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학생 한 명이 주는 영향을 전교생이 받고 있다. 또 학교의 수업 특성상 프로젝트형 수업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과 협력해야 하는 과제나 활동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와는 달리 인간적으로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행복해. 그리고 가끔 선생님과 많은 상담을 할 때가 너무 너무. 그리고 그냥 이런 사소한 대화 시간이 너무 좋아 아침 먹고 대화, 점심 먹으면서 대화, 저녁 먹으면서 이게 또 재밌는 게 밥과 함께 한다는 게.”(3번 인터뷰이)

“나는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시간 보내는데 그게 학교 다닌다는 가장 큰 묘미였어. 왜냐면 이게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또 사제시간을 넘어서 뭔가 끈끈한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그렇게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시간 보내는 그게 뭔가 더 충전이 되고 힐링이 됐어.”(2번 인터뷰이)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친구와의 대화가 행복하고 친구들과 보내는 소소한 시간들이 충전이 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또 학생들의 답변 속에서 24시간 동안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묻어나오고 있었다.

“저는 그냥 신앙적으로 이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 자체가 그냥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학교를 더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4번 인터뷰이)

“여기에 온 친구들이 내가 고민하지 않을 때에도 내 주변 친구들은 그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내가 고민이 생겼을 때 이걸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통하는 거야. 그것도 나는 내 신앙이 그것도 되게 성장하는데 되게 큰 거였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얘기가 통하니까 재밌는 거야. 그리고 그냥 공감은 아니잖아 영적인 공감이잖아 되게.”(5번 인터뷰이)

학생들이 친구의 영향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신앙이었다. 학생들은 같은 나이대의 비슷한 신앙 고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서로 공감이 일어났을 때, 다른 주제의 공감이나 사람과의 친밀감, 함께 보낸 시간을 넘어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한 학생은 이를 영적인 공감이라고 표현해주었다.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그냥 애의 고민들여주고 싶다. 내가 이런 걸로 나도 좀 힘들어 해봤는데, 내가 뭔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자꾸 얘기해 주고 싶다. 이런 거에 있어서 더 뭔가 애들한테 관심이 가는 거야. 그냥 일반 중학교였으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애들 사귀고 내가 마음 편한 애들 그냥 있을 텐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진짜 같이 이렇게 막 짜증 나고 화가 나는데도 계속 그냥 같이 옆에 있어주고 싶고 어떻게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고 싶어.

“애네도 간절해졌으면 좋겠어. 애들도 하나님이 간절해졌으면 좋겠고 나랑 같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는 거야. 같이 하나님 찾아서 진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3번 인터뷰이)

이 학생은 학교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자신도 고민하고, 극복했던 경험을 가지고 친구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주고 싶어했다. 더 이상 중학교 때처럼 그저 좋아하는 사람, 마음 편한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공동체가 함께 변화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주변 친구들이 자신과 함께 신앙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길 바라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 공감은 학생들이 공동체를 바라고 이루어가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그냥 기숙사에서 사소하게 그냥 예를 들어 청소 하나 하는 것도 다 이렇게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야 내가 먼저 할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하나에 되게 그런 사소한 거 하나는 다 이렇구나 여기 와서 이렇게 다 이런 친구들이 모였구나. 그러면서 나도 여기서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약간 그러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들의 모습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 보면서 되게 그것도 제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5번 인터뷰이)

한 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힘든 상황에 먼저 나서서 섬기는 친구들을 보며 사소한 일 하나에서 이곳이 먼저 섬기는 친구들이 모였다는 것을 느끼고 친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다짐하기도 하며 주변 친구들에게서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외에도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서로의 따끔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과,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주는 것 등 친구를 통해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다.

다. 선생님

위에서 학생들이 친구에 대해 언급한 내용 중에는 대부분 선생님까지 함께 언급하고 있었다. 드리미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은 친구와는 다른 영역일 뿐 동일하게 크고, 학생들은 선생님과도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물론 선생님께서 존중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있지만 되게 친구 같은 분위기에 그 학교가 선생님들도 그렇게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우리가 약간 서슴없이 그냥 벽 없이 대해주시니까.” (1번 인터뷰이)

“솔직히 말해서 oo선생님 수업이 다 그래. oo쌤 수업이 진심을 쏟아붓게 되고 진짜 너무 힘들지만 하고나면 또 얻었구나 내가 또 해냈구나 너무 성취감이 큰 그런 수업이지 oo선생님 수업이 다 그랬던 것 같아.”
(2번 인터뷰이)

“선생님들이 너무 진심이고 우리에게 서로 뭔가 이렇게 계속 관계를 주고 받으니까 뭔가 뭔 일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내가 열심히 하는 요인 중 한 개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3번 인터뷰이)

위 학생은 선생님들이 학생과 친근한 관계를 주고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선생님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전에 선생님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위압감과 거리감을 느끼고 두렵게 대했던 한 학생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과 대화 속에서 인생의 가치와 지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 학생들에게는 선생님과 대화 시간이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처럼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한 어른으로서의 가치와 지혜, 또 한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진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영역은 수업부터 신앙, 학생들과의 관계까지 다양했다. 나는 선생님들이 먼저 진심이 되어 뛰어드는 모습이 학생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뭔가 동역한다라는 말이 물론 일을 같이 하고 이런 거에서 동역이 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사소한 나눔에서부터가 뭔가 관계를 이렇게 맺고 뭔가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에 되게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약간 신앙의 선배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믿음의 선배?” (3번 인터뷰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가장 보람된 일은 제자와 함께 동역자로 서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가셨잖아.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역자이기도 한거잖아. 그런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해가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 (드리미학교 교사 / 공동 인터뷰 참고)

드리미학교의 교사는 ‘선생으로서 가장 보람된 일은 제자와 함께 동역자로 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향해 거는 기대와 소망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일상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동역자로서의 소망들을 자주 이야기한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동역자라고 불리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뛰어넘어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에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또 위에서 이야기했던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에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믿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단지 학생들의 능력이나

재능, 자기주도성을 성장시키기 위함을 뛰어넘어 학생들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라. 동역자

지금까지 위에 언급했던 친구와 선생님을 ‘동역자’라는 한 단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드리미학교는 서로에게 평생의 동역자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동역자라는 단어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깊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난 진짜 우리 학교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관계를 많이 가지고 가고 싶어. 그래서 그냥 단순히 친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애한테 어떤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졸업하고 싶어. 그럴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거든.”(공동 인터뷰 참조)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게 된 게 가장 소중한 것 같아. 무조건 경쟁 상대로만 여겼던 그 상대방이 전부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존중받아야 마땅할 존재들이고, 그리고 같이 동역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것만으로도 드리미학교는 존재 의미가 충분하지 않나.”(1번 인터뷰이)

“결국은 동역.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에서 계속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 신앙 공동체였고, 그리고 동역자라는 그 단어를 알았을 때부터 애네랑은 졸업 후에도 같이 갈 애들이었구나를 알게 되고.”(공동 인터뷰 참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아니까, 서로 말 안 해도 아니까 힘이 되고. 말 안 해도 힘이 돼. 그래서 그게 그걸 동기로 힘이 되고 동기가 되다 보니까. 진짜 좋아 동역자의 힘. 동역자가 있어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5번 인터뷰이)

“드리미 공동체가 진짜 나한테 정말 소중한 공동체고 정말 이 사람들은 동역자구나.”(2번 인터뷰이)

위에서 나오는 드리미학교 재학생, 졸업생들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학생들은 서로가 동역자임을 알고 느끼고 있었다. 학생들이서로를 동역자라고 여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얽은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경쟁 상대였던 상대방이 동역자가 되고, 졸업 후에도 함께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또 졸업생은 사회로 나간 뒤로 정말 드리미 공동체가 소중하고 동역자라는 것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학생들이 말하는 동역자는 단순한 동료의 의미를 넘어선 신앙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드리미학교가 다른 학교와 구분되는 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모두 같은 신앙이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가치와 목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드리미학교 안에서 함께 가치를 꿈꾸며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동역자의 의미와 힘을 클 수 밖에 없다.

정리해보면, 학생들은 드리미학교라는 신앙공동체를 얻은 것에 대해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또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즐거움을 주고 더욱 진심으로 학교생활에

임하게 하는 것이 내면에 드리미학교라는 공동체에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 때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V. 결론

이 연구는 ‘학교의 교육을 즐기는’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부터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이곳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가는가? 드리미학교에서는 어떤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기에, 학생들이 이렇게도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넘어 직접 학교에서 생활한 학생들의 경험과,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변화한 것에 대한 비공식적인 자료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며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연구 질문은 드리미학교의 교육을 즐기게 하는 공식 / 비공식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이며,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정리하려 한다.

첫째, 자율시간, 학교 교육과정, 학생주도를 포함한 학교생활이다.

둘째, 영혼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신앙이다.

셋째, 개인의 특성과 성격, 자라온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개인적 성장이다.

넷째, 친구들과 선생님, 동역자를 포함한 공동체이다.

이 글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연구 후 느낀 점과 연구 결과를 보면서 발견한 시사점들이다. 이번 사례 연구를 통해 나는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을 알았다. 연구 과정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고, 어려웠던 과정을 뽑으라면 나는 연구 질문 선정을 뽑겠다. “내가 드리미학교에 대해 정말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지며 선정된 이 연구 질문은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경험을 잘 말해줄 수 있고, 드리미학교의 특성과 다양한 부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학생들이 드리미학교의 교육을 즐기는 것이 마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 되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학생들이 일반에 있을 때와는 달리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들 안에 열정이 생기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이전까지 맺어왔던 인간관계들과는 결이 다른 관계를 맺어가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드리미학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공동체, 신앙, 가치에 대한 내면의 동의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위에서 말해주었던 수많은 경험들은 모두 이 내면의 동의를 일으키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알았다. 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드리미학교를 즐길 수 있는 강한 요인에 대해 생각하며 몇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드리미학교가 포기하지 않고 잡고있는 가치들이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수업을 선택하고, 직접 개설하기까지의 권한을 줄만큼 학생들을 신뢰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큰가? 학교에서는 신앙과 다섯 가지의 지켜야 하는 가치를 두고 다른 것과 양보하지 않고 신중하고, 또 단호하게 그 가치를 지켜내고 있는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학생들을 신뢰하며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학교의 학생들에게 공동체가 주는 영향은 얼마만큼의 크기이며, 학생들 스스로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위 질문들은 학생이 학교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공동체성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는 질문들이다. 우리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럴 때에 진정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을 즐기는 학교가 될 것이다.

2. 연구2: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왜, 어떻게 변화되는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청소년 삶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곳은 주로 학교이다. 학교의 교육, 학교에서 맺는 관계, 학교에서부터 얻은 경험 등 다니고 있는 학교가 기숙사 학교라면 아마 더욱 그럴것이다. 학교에 있으면서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며 학생들은 성장해가고 크게 변화한다. 하지만 같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친구, 선생님이 아니라면 그 변화를 알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같이 생활하는 친구, 선생님도 쉽게 알아차리기 못할 수도 있다또 변화를 알더라도 그 변화의 과정을 다 모르니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변화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 성장했고 변화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더욱 돕고 더 나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빚음, 신앙, 3p, 생활, 5가지의 가치 교육을 받으며 일반학교와는 다른 차별화된 교육을 받으며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다. 이런 교육을 받으며 학생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으며 어떤 성장을 이루고 있을까.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하는 과정을 보다 정확하기 알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들어보며 학생들이 생각하는 변화점을 듣고, 그 변화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변화된 것인지 학생들의 시각을 자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직접 말해주는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연구할 것이며 이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여러 학생들의 성장과정을 더욱 돕는 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나의 연구문제는 “드리미 학교 학생들은 왜,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다. 사실 처음 연구 질문은 “드리미학교의 교육을 즐기는 학생들과 즐기지 않는 학생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였다.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에게는 신앙, 학교생활, 관계를 맺는 방법 등 사소하지만 크고 작은 변화들을 보았다.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고 난 친구들은 정말 학교생활을 즐기고 있었으며 드리미학교 교육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느낌이 강했다. 반면에 아직까지도 학교생활에 있어 신앙,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학교생활에 있어 많이 지쳐보였으며 드리미학교 교육에 적극적이지 못했고 부정적인 느낌이 강했다. 그래서 그들의 차이를 알고 그 차이의 크기를 줄여가고 싶었다. 단순히 성격차이가 아닌 정말 학교의 어떤 환경 혹은 요소가 이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바로 연구를 진행해보려고 했으나, 학생들에게는 너무 많고 다양한 변화의 요소가 있었고 어느 특정 부분을 변화했다고 해서 학교를 즐기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또한 나는 그들의 차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점과 그 변화를 일으킨 요인이 궁금했던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학교를 즐기고 있던 즐기지 못하고 있던 드리미학교에서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느꼈기에 이런 변화를 일어난 것이지 그 변화의 과정이 궁금했다. 그렇기에 연구질문을 변화의 더욱 집중 할 수 있게 바꾸었고 핵심질문을 “학기초에 ‘나’와 현재의 ‘나’는 ‘어떤 면’이 변화했나요?”, “‘어떤 면’이 어떤

것에 의해 왜 변화되었나요?”로 두어 답변을 학생들의 변화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학교생활에서 경험했던 이야기가 묻어나올 수 있게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선정

“학기 초에 ‘나’와 현재의 ‘나’는 어떤면으로든 변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라는 질문을 두고 Likert 척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스스로도 변화를 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주로 선정하였고 연구 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로 학기초와 현재의 모습의 변화를 이야기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은 교육을 이미 마친 졸업생이나 현재 3학년에 있는 학생들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2. 자료수집방법 (심층면접/참여관찰/문서, 영상자료 등)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5월 31일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돌린 전체 설문으로 시작되었고 이후에 설문을 통해 선정된 학생들로부터 인터뷰를 진행하여 더욱 깊이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인터뷰는 한 명당 적게는 25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장소는 주로 조용하고 사람이 없는 배움터(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전체 설문 내용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자신의 변화를 얼마나 느끼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선정된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에 앞서 연구의 취지와 질문을 설명한 후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을 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모두 기록하는 과정을 거쳤다. 기록한 자료를 여러번 읽어보며 부족한 부분은 추가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다.

가. 인터뷰이 정보

인터뷰이이름	기수	기타
1번 인터뷰이	1기	드리미학교 졸업생
2번 인터뷰이	1기	드리미학교 졸업생
3번 인터뷰이	2기	드리미학교 재학생
4번 인터뷰이	2기	드리미학교 재학생
5번 인터뷰이	2기	드리미학교 재학생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주제별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통해 많은 자료들을 한 곳에 수집하여 자료 중 비슷한 내용들을 모아 주제별로 정리하였고 그 가운데서 키워드를 정해 주제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대한 다양한 변화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어떠한 답을 정해두고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는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III. 연구결과

1. 진심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변화는 한가지의 요인으로 구분하기 정말 어렵다. 한가지의 변화만 알아봐도 여러가지의 요인들이 나왔기에 이것을 키워드로 나눠 정리하는 것은 더 어려운 작업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공통된 변화가 있었는데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학교 속에서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서 ‘진심’이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허투루 하지 않으려고 했고 거짓으로 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들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임을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며 느끼고 있었고 그렇게 더욱 이 순간들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그 뒤에는 ‘간절함’이라는 것이 생겼다. 어떤 때는 선생님보다 프로젝트의 크기를 확장시켜 일을 더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간단한 과제들도 야간자율학습을 시간을 써가며 새벽까지 하다 잠에 들기도 한다. 뭐든 진심으로 하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금 서툴지 몰라도 학생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보았을 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원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지 고민하고 있었다. 이제 드리미학생들의 변화를 두고 이야기 할 때 ‘진심’을 빼고는 이야기 할 수 없을 것 같다. 뒤에서 말하게 될 여러 이야기 속에서도 학생들의 ‘진심’이 내재되어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학교 나가면 각자 사는 거니까 뭐 인생이라는 게 원래 혼자 걸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못 오는 어떤 순간들이잖아요.... 충분히 거짓으로 저 사람을 대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대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고 그게 또 하루하루 이어지다 보니까 그 다짐이 이제 좀 저에게 변화가 되지 않았나” (3번 인터뷰이)

“친구들과 부대끼면서 갈등도 있고 물론 아직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도 갈등 막 완벽하게 해결할 수 그럴 수 없지만 근데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동체로 살아가고 어느 사회에 들어가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막 좀 공부가 된 거죠 실습한거죠 실습!” (1번 인터뷰이)

“학교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인 그런.. 뭔가 나와 이렇게 가치를 공유하는데 또 다 모두가 너무 다 진심이니깐 이게 또 너무 재밌고 그래서 더 진심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 (공동 인터뷰 참조)

“진짜 신뢰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난 진짜 우리 학교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관계를 많이 가지고 가고 싶어 그래서 그냥 단순히 친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어떤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졸업하고 싶어. 그럴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거든” (공동 인터뷰 참조)

이처럼 드리미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순간순간들 매우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나 혼자 진심인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에 또 그런 순간들을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에 더욱 ‘진심’이 되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또 학교에서 맺는 모든 관계들이 단순히 친한 관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고 학교에서 그런 관계를 많이 형성해 나가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며 어떤 과정을 겪었길래 어떤 요인이 있었길래 이렇게 모든 생활에 있어 진심이고 싶어하는 걸까.

2. 관계

앞에서도 말했듯이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관계에 있어서도 진심이고 싶어한다. 그게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이든 한 두번 보고 마는 관계가 아닌 힘든 일은 함께 이겨내고 기쁜 일은 더욱 기뻐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품어가는 동역자의 관계를 바라고 있다. 상대방을 신뢰하고 동역자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학교생활을 같이 하면서는 느끼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기도가 필요하고 동역한다는 것을 느낄만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은 주로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하며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경험을 하면서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간다. 많은 연구대상학생들은 그들이 일반학교를 다녔을 때와 비교해보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 하고, 입이 거칠었고, 인맥을 넓히기 위해 친구들과 무리를 형성했고, 내가 싫은 사람이면 뒷담화하고 말고, 날 싫다고 하는 아이들과도 멀어지면 멀어졌지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드리미학교에서 학생들은 바른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갈등이 생기면 풀려고 애쓰며 얹고 넓었던 인간관계를 깊고 좁은 인간관계로 만들어가고있다. 또한 ‘나’ 중심에서 ‘너’ , ‘우리’ 중심으로 바뀌었고, 관계에 있어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했을 때’가 아닌 ‘너가 생각했을 때’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깊은 교제를 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효율적으로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가. 선생님

학생들이 이렇게 ‘진심’이 되어버린 요인 중 하나는 선생님이 먼저 진심이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치다보니 선생님들께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도 진심이 되어버린 것이다.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 받은 선생님의 관심과 드리미학교에서 받은 선생님의 관심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느끼며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선생님을 통해 변화할 수 있었다고한다.

“우리 중학교는 뭔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선생님들이 막 좋아하고 막 그랬었던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유명처럼 있다가도 없는 존재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었는데 여기 와서는 뭔가 첫 날부터 입학식 그다음 날 한 2,3일 뒤부터 막 박람회를 하는데 갑자기 나랑 아무것도 안 겹치는 선생님이 갑자기 ‘어 00이지?’ 막 이러시면서 뭔가 그렇게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게 좀 많이 컸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하지도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를 믿어줬다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이 뭔가 좀 나를 더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 해” (2번 인터뷰이)

“선생님들이 너무 진심이고 우리에게 서로 뭔가 이렇게 계속 관계를 주고받으니까 뭔가 뭘 일을 하더라도 선생님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 학교 일도 선생님이 이런 거 모집한다 그러면 저희가 할게요 하고 싶어요. 저 남을래요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요인 내가 열심히 하는 요인 중 한 개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공동 인터뷰 참조)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 진짜 막 밤새고 힘써주시는.. 우리가 어떤 퀄리티를 내더라도 그렇게 힘써주시는 것에서 일단 되게 많은 걸 배운 거죠. 나도 나중에 일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1번 인터뷰이)

일반학교는 선생님 수가 학생 수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선생님과 개인의 관계를 형성해가기 어렵다. 그렇기에 일반학교에서 선생님의 관심을 주로 받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앞장 서서 무언가를 하는 친구들, 사고를 많이 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드리미학교는 조금 다르다. 학생 수도 적고 학교도 좁은데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든 열심히 하는 탓에 오히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더 큰 관심이 가기도 한다. 실제로 드리미학교 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교사들은 학생들 이야기를 하며 모든 학생들의 상황을 알고 있으려고 하고 학생마다 교사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한다고 한다. 또 교사들은 학생들을 그냥 학생1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명한명 성장하는 학생으로 보며 존재 자체를 다르게 대하고 학생들은 이것으로부터 일반학교와 드리미학교 교사의 차이를 느끼는 것 같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로는 학생 수가 적은 것이 한 몫한다고 보지만 그것보단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면서 믿음의 선배로서 학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주기에 학생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선생님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나. 공동체

충고,조언 해주는 선생님과 친구들 즉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드리미학교는 특성 상 혼자있는 시간보다 공동체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더욱 많다. 그렇기에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나의 결점이나 보고싶지 않았던 공동체의 결점을 보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학생들은 그럴 때마다 공동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힘들어하고 신앙까지 흔들려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공동체에게 상처받고 지쳐있으면서도 다시 그 공동체로부터 치유받고 관계를

더 깊게 형성해나간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받고 다시 회복하는 그 기간까지 기다려주고 신경써주며 걱정해주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냥 관계에 너무 지치고 그냥 나는 애들이랑 관계를 아예 맺지 않을거다. 다가오면 나는 그냥 다 끊을 거다라고 결심했는데 근데 이제 계속 나를 기다려주는 애들이 있는 거야. 나를 신경 써주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는 애들이 있고... 솔직히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온 애들이 몇 명 있어. 내가 개네 학기 초에 진짜 싫어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었어.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나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래서 느꼈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선한 마음을 다가와 준 사람이 이제 앞으로 몇 명이나 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 그때부터 약간 바뀌었어. 그 주변 친구들 덕분에 이제 주변 친구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때, 그때부터 갈수록 이제 편한 애들이 늘어나고 이제 그런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아” (4번 인터뷰이)

더 나아가 트리미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심이 상대방 전해졌을 때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값진 경험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통해 조금씩 변해가는 친구들을 보며 또 다시 스스로도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있는 마음이 나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생기길 원하고 있다.

다. 받아들임

예배, 설교말씀을 통해 나 또한 본질적 죄인임을 알았고 너와 내가 다를 것이 없음을 알게되었기 때문이다. 트리미학교 학생들은 학생 수도 적은데 공동체로서 함께 하는 활동이 대부분이다보니 서로의 신앙은 물론 여러 다양한 부분들을 알고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들어가면 다들 결점이 있고 죄라는 거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찬양팀을 서면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고 나도 그런 거고 다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런 걸 인정하면서 제가 조금 더 변화하게 된 것 같아요” (5번 인터뷰이)

친구들에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고 정직하게 되며 관계가 흔들리기도 하지만 나 또한 다를 것 없는 죄인임을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깨닫고있다. 학생들은 이것을 머리로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동의가 일어나 내가 그것을 진짜 인정하고 났을 때 변화했다고 한다.

3. 신앙

드리미학교는 기독교 대안 학교로 사실 신앙이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학교다. 하지만 신앙은 공부 형식의 배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 실천해야 하는 배움이기에 드리미학교 학생들에게 신앙은 어려워하면서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신앙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기도 하다. 그럼에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한명도 빠짐없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신앙이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신앙적인 변화에 있어서 민감했고 깨어있었다.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며 사경회와 예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가볍게 생각하던 죄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또 자신의 신앙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에도 관심이 많았다. 실제로 드리미학생 중에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책도 처음 읽어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학교를 다니며 자기가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제목을 만들어가면서 기도가 점점 간절해지는 경험을 하는 등 여러 신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가. 함께 겪음

드리미학생들은 서로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무너져내리는 것도, 더욱 성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고 있기에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 영향을 좋은 에너지로 주고 받으며 성장하고 있었다.

“여러 친구들이 나를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름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뭔가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나름 자기가 신앙에 있는 색채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청소년이지만 저 나이에서도 저렇게 표출을 시키니까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학습이 되고 그리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걸 좀 정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3번 인터뷰이)

“옛날에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 나랑 내 가족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역해야지, 동역해야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뭔가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뭔가 여러 친구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는 게 더 하나님 일하기에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동 인터뷰 참조)

나. 예배의 순간들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섬김이라는 표현없이 설명할 수 없는 예배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자리는 단순히 국,수,사,과,영을 공부하기 위함도 아니고 성공해서 조금 더 잘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다. 일반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조금 더 유명한 사람에게 강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드리미학교에서는 어떻게보면 사회적으로 평범하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과 복음을 전해주시다.

“물론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성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인데..그냥 예배가 아니고 예배 설교를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예외적이죠... “ (3번 인터뷰이)

학생들은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 여태까지 자신을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게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진다.

다. 신앙의 그늘

이러한 여러 긍정적 변화 중에서도 신앙은 그늘진 부분도 있었다. 수 많은 예배와 신앙수업들을 통해 이미 정답을 알아버려서 마음 속에 동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언가에 이끌리듯 정답을 얘기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무조건 한쪽으로만 가’라고 했을 때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정답은 기독교라는 것을 본질적인 정답은 알고 있지만 세상적인 정답으로는 뭔가 그게 맞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직 이 세상을 다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뭔가 그냥 뭔가 계속 이끌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속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5번 인터뷰이)

학생들은 이런 그늘진 부분에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답을 알아서 머리 속에서 나오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 동의가 되어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하며 이것을 두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었다.

3. 삶의 목적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섬김과 사랑을 배우며 성경적인 학교 가치에 따라 살다보니 신념, 가치관이 변했고 그렇게 성격도 변화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조금이라도 하고 나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보며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도 더해지고 있었다. 신앙이 깊어진 일부 학생들은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

가. 목적의식

드리미학생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 무엇을 더 배우고 얻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또 나의 일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며 나 하나 잘 살아보려고 했던 목적이 섬김으로 바뀌었고 사랑이 커지고 책임감이 더해졌다.

“옛날에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거 내가 해서 얻게 될 수 있는 건 뭔지 이런 게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 뭐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니까 뭔가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서 뭔가 더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2번 인터뷰이)

좀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좀 신앙적이랑 연결이 되죠 신앙으로 좀 하나님과 동행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건데 (1번 인터뷰이)

약간 그 시간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나는 그냥 하루에 막 그런 큰 사건이나 막 그런 일이 없어도 그냥 나는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소중한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번 인터뷰이)

더불어 드리미학생들은 학교에 있으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이 순간들이 다신 오지 않을 귀한 시간들임을 깨닫고 있었다. 순간순간이 소중한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하루하루가 소중한 경험, 추억들이 되고 있다.

나. 태도의 변화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바뀌었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며 처음 시작하는 분야들도 그게 맞든 틀리든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보며 더 나아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해두고 뛰어넘는 경험 또한 하고있었다.

“막 포기하고 싶은 게 한둘이 아니었는데 내 한계를 설정해 두니까 내가 이만큼 이만큼 더 할 수 있었어 이 걸 깨닫는.. 많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 힘들음을 잊으려고 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살아갈 때도 더 해보자 더 할 수 있어 이런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결심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번 인터뷰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아야겠다. 실령 내가 노력했는데 그게 나랑 안 맞고 또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어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3번 인터뷰이)

드리미학교에는 스스로 하는 활동이 많다보니 학생들은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전에 이런 경험도 했는데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 어려움 없이 다 해내며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왜,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가’에 대한 질문을 두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변화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했으며 학생들이 직접 말해주는 변화의 과정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변화에 있어 어렵지 않게 이야기하는 편이었다.

자신의 변화된 점뿐만 아니라 변화하게 된 요인부터 변화되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었다. 또 변화된 부분도 다양했는데 크게 관계, 신앙, 삶의 목적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고 연구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이렇다.

첫째,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말하는 변화되는 요인 중에서 빠지지 않고 나왔던 이야기는 '진심'이다. 학생들은 공동체로서 학교생활을 하고, 신앙적으로 성장을 함께 겪으며 모든 면에서 진심이고 싶어했다. 이 진심이 마음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학생들은 변화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실제로 학교생활을 하며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런 활동 속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맡으며 짧은 순간순간 속에서 변화되고 있었다.

둘째,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학교 밖에는 드리미만한 공동체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 공동체에서 더욱 열심히 하려 한다. 또한 학교를 일반학생들이 고등학교처럼 다니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미학교를 사회에 나가기 전 실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미래를 점점 생각하고 있기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치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며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다.

진심을 또 다른 말로 마음 속에 동의가 일어난 것이라고 표현해본다고 했을 때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알고 품으며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비로소 변화했다고 이야기한다. 드리미학교는 학생들마다 마음속에 동의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욱 주의깊게 살피며 변화할 수 있도록 도운다면 학생들은 더욱 의미있고 깊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하며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왜 이 학교에 진심이며 학생들에게 진심인지 의문이 들었고 이 문제는 이후의 연구에서 풀어주면 좋겠다.

3. 연구3: 드리미학교에서 적극적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 대상인 드리미학교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성경말씀을 기반으로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기독교대안학교이다. 많은 기독교대안학교 중에서도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이며, 첫 졸업생 배출(2022년 1월) 이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적인 교육을 제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학교의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중에 있다. 2022년 1학기에는 드리미학교 2.0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드리미학교는 기존과 같은 교육과정을 벗어나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다. 일반 학교와 같이 학생들이 정해져 있는 교과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주도해야 하는 ‘창의활동’과 교사들이 개설하더라도 학생의 주도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선택활동’,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기에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과 자발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개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학생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몇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젝트, 자치기구 활동, 발표 등 많은 부분에서 뛰어난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몇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이러한 학생들의 차이를 그저 성향 차이로 명시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참여도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 요소를 파악하여 활성화 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이 더 질 높은 교육을 이루는 드리미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드리미학교에서 많은 것을 제공하여 주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하여 인터뷰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 학교와는 다른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이므로, 성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요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앞으로의 드리미학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위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함께 사용해보려 한다. 양적연구, 즉 설문지를 통한 학생들의 참여도와 학교에 대한 인식, 인터뷰를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그를 분석하려고 한다. 양적연구를 통해 다양한 결과 수치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질적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드리미학교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이며, 드리미학교의 숨겨져 있는 모습들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이러한 드리미학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학생들은 드리미학교에 입학 후 참여도와 주도성이 성장하였는가?

나. 드리미학교에서 많은 것을 제공하여 주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2가지 질문을 알아보기 위한 하위질문들로 인터뷰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사람마다 질문의 형식을 조금씩 다르게 하여 진행하였다.

3. 연구문제 개념설명

가. 학교참여가 중요한 이유

학교 참여는 학생들이 학교에 투자하는 자신의 노력과 학교에 대한 흥미와 사랑을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참여를 한다는 것은 곧 학교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학교 참여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환경이나 규정 등도 영향을 끼치고 그 뿐만이 아닌 공동체의 분위기 등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드리미학교에서의 학교 참여

미래교육에서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주도성과 리더십이다. 그렇기에 드리미학교 또한 미래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드리미학교는 특이점이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모토가 서서평 선교사가 했던 말인 “Not success, But service” 즉, ‘섬김’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 가치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흔히 드리미학교는 “‘섬기는 리더’를 양성한다”라고 말한다. 섬기는 리더는 곧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뜻하기도 한다. 드리미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참여도, 적극성, 주도성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몇 학생만이 아닌 많은 학생이 정말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참여도’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이다.

4. 연구의 한계

어떻게 보면 인터뷰와 설문에 응답하는 것도 하나의 참여도라고 볼 수 있다. 분석을 위해 설문지도 사용하였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인식하였고 그를 실행하였다. 다양한 학생들의 경험을 듣고 분석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인터뷰에 응하여 시간을 내주는 것은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 내에서 꽤나 주도성이 높은 학생, 학교와 활동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학생 등을 위주로 인터뷰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인터뷰 결과는 드리미학교와 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일명 ‘주류’학생들의 경험과 관점이 반영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선정

드리미학교 학생들 본 연구주제에 대해 알기 위해 ‘드리미학교 사례연구’팀에서는 먼저 드리미학교에 재학 중인 전교생과, 졸업생에게 설문지를 보내었다. 그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알아보고 그 후 대상을 선정하여 드리미학교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질문을 던지면서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학생들 간의 답이 매우 다양했기에 대주제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소질문은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인터뷰이의 동의하에 녹취해, 인터뷰 진행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참고자료로서 활용하였다.

2. 자료 수집 방법

인터뷰이 이름	기수	기타
1번 인터뷰이	2기	드리미학교 대의원회 직책, 영상팀, 학생회 부서와 같은 다양한 활동 참여
2번 인터뷰이	3기	드리미학교 학생회 직책, 사진팀 소속
3번 인터뷰이	2기	드리미학교 사진팀 소속
4번 인터뷰이	2기	드리미학교 학생회 직책, 영상팀과 같은 다양한 활동 참여
5번 인터뷰이	2기	드리미학교 대의원회 직책, 영상팀, 학생회 부서 등 다양한 활동 참여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설문지 응답을 통한 많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과 개개인의 성장에 대한 수치 파악
- 나. 질적연구, 즉 인터뷰를 통한 개개인의 경험을 녹취 후 이를 통한 분석
- 다. 본 학교의 학생으로 재학 중인 연구자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문지 수치, 인터뷰를 이해 및 분석

III. 연구결과

1. 학생들에게 드리미학교의 교육은 어떠한가?

학교 참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학생이 속한 그 학교의 교육이다. 학교에서 어떤 방향을 추구하며 어떤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교육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은 변화한다. 또한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잘 일으킬 수 있고 반대로 학생들의 흥미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드리미학교의 교육은 매우 혁신적이며 일반적인 교육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일반적인 교과 교육과정을 받아온 학생들에게 드리미학교의 성격적 통합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은 매우 다르게 와닿았을 것이다. 선택활동, 창의활동, 신앙활동 등 이러한 드리미학교의 다양한 교육 요소들은 일반학교의 수업 커리큘럼과 전혀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학력인정 조차 되지 않는 학교에서 무엇에 매력을 느끼고 이 교육을 3년동안 배우려고 하는 것이며 어떤 흥미를 일으켰을까?

학생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듣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인터뷰에 비해 대체적으로 부담이 덜 하므로 많은 친구들이 응답을 해주었다. 설문지에 응답해준 학생은 졸업생을 제외하고 51명, 거의 전교생이 참여를 한 것이다. 설문지의 많은 질문 중 “나의 학교생활을 만족하게 만든 요소를 선택해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은 바로 ‘드리미학교의 교육’이었다. 그 뒤로는 신앙, 학교시설, 공동체가 뒤를 이었다. 이는 참여도가 높던 낮던, 주도성이 뛰어나던 안뛰어나던 드리미학교의 교육에는 전반적으로 만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설문을 통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드리미학교의 교육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교육의 어떤 부분이 만족하게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들은 학생들이 말하는 드리미학교의 교육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다음과 같다.

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교육 환경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자유롭고 원하는 배움활동을 할 수 있는 드리미학교의 교육활동이 학생들에게 큰 만족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인터뷰 중 드리미학교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중학교 때까지 받아온 공교육과 비교를 해서 설명해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드리미학교의 교육이 학생들이 몇 년간 받아왔던 교육과 많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며 교사 중심적인 수업을 받아온 학생들에게 드리미학교의 선택활동, 특히 창의활동 같은 학생 중심의 수업은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교실에서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학생들은 배움활동에 대해 큰 흥미를 느낀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입학 초기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와 익숙해져버린 교육에서 드리미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선택활동 속에서 주어진 많은 발표와 과제들로 인한 스트레스, 학생이 직접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야하는 창의활동, 매일매일 하게 되는 신앙활동 등 입학 전까지 살아왔던 모습, 받아왔던 교육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환경을 맞닥드린 학생들은 당연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늪에 갇힌 것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였고 많은 학생들은 자신에게 고난과 스트레스를 준 이 어려움들 속에서 자신들이 성장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 ‘공부’라는 단어에는 거부감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드리미학교의 학생들은 ‘공부’, ‘배움’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으며 ‘공부’와 ‘배움’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즉, 학생들은 드리미학교의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 즐겁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보물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 좋다는 것을 넘어 사랑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으며 이는 드리미학교의 교육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설문, 인터뷰 모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드리미학교의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 듯하다.

“쌤들이 강의하는 식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대화를 해보자, 뭐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는 배움?이라고 해야하나? 이렇게 너무 좋더라구” (1번 인터뷰이)

“일반학교랑 비교했을 때 우리 학교 교육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거 말고도 다른 면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해. 지식말고도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해. 일반적으로 드리미학교에서 생활하는 삶이 그 사람의 무언가를 바꾸는데 영향이 큰 것 같아” (2번 인터뷰이)

‘선택권이 주어진다는거? 내가 의견을 낼 수 있는게 주어진다는거? 내 의견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는거? 그게 너무 좋았어’ (3번 인터뷰이)

“짱 잘맞지. 엄청 잘 맞는 것 같아. 또 소중한 것 같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이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뭘 배우고 있었을까? 다른 곳에서도 뭘 배우고 있었을텐데 이걸 못배웠다면 뭘 배워야하는거지? 뭘 배우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4번 인터뷰이)

2. 학생들에게 ‘공동체’란 어떤 존재인가?

일반적으로 ‘공동체’라는 단어가 학생들에게 익숙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들은 시험을 치고 등수가 매겨지며 자신의 곁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해오는 삶을 살아왔기에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경쟁없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낯설게 다가왔을 것이다. 드리미학교는 많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중 ‘공동체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에 공동체는 드리미학교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다. 설문 응답을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드리미학교의 공동체에 대해 만족하고, 공동체성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입학 당시 낯설게 다가왔을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긍정적인 수 있도록 도와준 요소는 무엇일까?

드리미 학교는 기숙형 학교이다. 즉,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서로 부딪히며 성장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에게 헌신해주던 가정의 품에서 떠나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 학생들에게는 꽤나 쉽지 않은 과정일 것이다. 물론 자신과 잘 맞는 친구도 많겠지만 방학과 의무귀가를 제외한 모든 시간을 함께하는 그 속에서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친구를 당연히 만날 것이며 여러 다툼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학생들은 갈등을 조율해가는 그 과정, 나랑 전혀 맞지 않는 친구와 하나의 가치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과정을 겪으며 일반적인 교육 속에서, 경쟁 시스템이 녹아들여져 있는 교육과정 속에서 배울 수 없는 역량을 드리미학교에서 공동체를 통해 기를 수 있었다.

많은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공동체성을 느끼게 하는데 특히 기숙사 생활이 학생들에게 ‘공동체’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함께 방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또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이다. 굉장히 작고 사소해보일 지도 모르는 공동체지만 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미움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인터뷰이들은 말한다. 하지만 방원들과 기준을 맞춰나가는게 정말 힘들지만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길을 찾아나갈 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자신이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느낌과 내 곁의 친구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

또 드리미학교에서 학생들의 공동체성을 키워주는데 큰 기여를 하는 합창은 학생들에게 공동체에 스며드는 기회를 제공하곤 한다. 다른 소리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음을 내기 위해서 연습하고 맞춰나가는 과정은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힘들기도 하고 싫증이 나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로가 흔들릴 때 도와주고 함께 연습해주며, 기도해주는 곁의 친구들과 함께 함으로써 합창을 완성하고 이를 통하여 “내가 드리미공동체에 속해있구나, 이 친구들은 내 동역자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낀다.

드리미학교의 공동체는 하나의 숨겨진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학생들은 그냥 지식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배워나간다.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 나와 전혀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을 겪으며 인간관계 면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서로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3. 신앙이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드리미학교에서의 신앙 활동은 “나의 학교생활을 만족하게 만든 요소는?”이라는 질문에서 ‘드리미학교 교육’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한 활동이다. 물론 드리미학교의 교육 속에도 저 신앙이 포함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 또한 “본인이 가장 성장했다고 느끼는 영역은 무엇인가요?”의 답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이며 거의 절반에 속하는 학생들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설문지를 통해 응답을 해주었다.

신앙은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적극성, 주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드리미학교의 모토는 ‘섬김’이다. 그리고 학교는 ‘섬기는 리더’를 양성한다. 활동에 참여하게 한 동기부여 중 “나의 사명을 찾기 위해”, “섬기기 위해”라는 이 이유들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땅에 내려와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참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4. 주변 친구들이 본인에게 주는 영향은 어떠한가?

한 공동체 안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청소년 시기, 함께하는 친구들이 어떠한가에 따라 가치관과 성향이 변하기도 한다.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드리미학교의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우선 신앙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문을 통해 답해주었다.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는 영역인 신앙도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다른 면도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공동체 안에서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을 지 구체적인 경험과 함께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드리미학교의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있다고 답해주었다. 특히 앞서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신앙과 그 외에 동기부여 면에 있어서 인터뷰어들은 모두 주변 친구들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특히나 더욱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며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신앙,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큐티를 하며 나누거나 주일예배에서 나눔 활동을 하며 많이 배우고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성장한다고 답해주었다. 드리미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나눔의 장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좋은 영향만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좋은 영향 뿐 아니라 나쁜 영향도 친구들을 통해서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좋은 영향을 줘서 그 친구들도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들로 변화하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나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신앙이라고 해도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혼자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나 말고도 함께 있다보면 분위기를 통해서라도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신앙에 대해 힘들 때 아침에 큐티하거나 주일예배 때 나눔한다거나 그럴 때 배우는 것도 많고 영향도 크다고 생각해. 또 가치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너무 다양한 사람이 한 곳에서 모여있잖아. 정말 많지만 한 곳을 바라보고 있고 함께. 그래서 동기부여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2번인터뷰이)

“전 주변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신앙은 진짜 그냥 뭔가 주변으로 인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돈독해지는?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고, 가치관? 가치관도 같이 있는 사람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는 것 같아. 그 사람과 얘기를 하거나 하다보면” (3번 인터뷰이)

“완전 많이 받는 것 같아. 좋은 영향은 좋은 대로 받고 나쁜 영향은 나쁜 대로. 어쨌든. 근데 신앙적인 부분은 조금 달랐다고 느꼈어. 나는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이렇게 아닌 친구들한테는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보다는 좋은 영향을 주고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 (4번 인터뷰이)

5. 학생들은 드리미학교에 입학 후 참여도라는 역량이 성장하였는가?

학교 학습에 대한 참여도는 곧 학교에 대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며,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프로젝트 수업과 학생 주도형 수업이 대부분인 드리미학교의 학생들에게 활동들에 대한 참여도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모두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고 같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려는 열정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입학 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 또한 설문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나는 드리미학교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했다”라는 질문에 대해 성장했다고 답을 해주었다. 또 “학교 생활(수업, 동아리, 기타 프로젝트

등)에 열심히 참여한다”에 대한 답 또한 열심히 참여한다가 대부분의 학생의 응답 결과였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인터뷰 역시 방향은 같았다. 인터뷰를 진행한 모든 학생들이 1학년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입학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참여도, 주도성에 대한 역량이 많이 성장했다고 답을 해주었다.

“당연히 엄청 늘어났지. 확실히 늘어. 선배들을 보기도 하고 학교들을 알아가면서 나도 뭔가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빛음 때문에 바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빛음 끝나면 나는 이 학교에 뭔가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번인터뷰이)

“확실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드리미학교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보니 저도 변한 것 같아요” (3번인터뷰이)

“응 진짜 많이 는 것 같아. 드리미학교 전에는 나한테 뭔가 이렇게 많이 참여권이 주어지지 않았어. 생각해 보면, 자발성 이런 기회도 없었고. 근데 여기 와서는 진짜 신세계를 맛본거지. 자발성의 끝판왕!” (4번인터뷰이)

6. 드리미학교 안에서 적극적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본 연구 주제인 ‘드리미학교 안에서 적극적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가. 입학 전부터 참여도와 적극성이 갖춰져있던 학생들의 독보적인 성장 곡선
- 나. 학교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동의 여부
- 다. 공동체에 대한 동의 여부

첫 번째는 ‘입학 전부터 참여도와 적극성이 갖춰져있던 학생들의 독보적인 성장 곡선’이다. 설문지와 인터뷰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참여도에 대한 성장의 여부는 모두 ‘성장하였다’였다. 이는 보편적인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 자신의 기준에서는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모두가 참여도에 있어 성장을 했다고 해석을 할 때, 객관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입학 전부터 참여도와 적극성이 갖춰져있던 학생들의 독보적인 성장 곡선’인 것이다. 드리미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활동에 대한 꽤나 높은 참여도와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던 학생들이 드리미학교의 학생 중심적인 프로젝트형 활동들을 만나게 되며 그에 대한 성장이 배로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드리미학교의 교육을 만나 참여도와 적극성의 역량이 엄청나게 성장한 학생들이 활동들에 대한 높은 참여율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평균적인 학생들의 참여율에 대한 비교의 기준이 되었고 학생들이 적극적인 학생, 그렇지 못한 학생으로 나뉘서 보였던 것이다. 모두가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독보적인 학생에 의해 가려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학교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동의 여부’이다. 대체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학생들은 드리미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을 잘 이해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신앙과 섬김 등에 대한 시각이 매우 긍정적이다. 반면에 대체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학생들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다소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설문지를 참고하여 살펴보았을 때 또한 차이가 있었는데, 참여도와 활동해 대한 태도가 다소 부족한 학생들은 “나의 학교생활을 만족하게 만든 요소를 선택해주세요”에 대한 답변이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이 드리미학교의 교육과 신앙, 공동체를 선택한 것과 달리 시설이라는 요소 하나만 선택한 모습을 보였다. 드리미학교의 교육, 신앙, 공동체 등과 같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는데 시설 하나만을 선택한 모습, 이는 드리미학교가 추구하는 주도성, 신앙 등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관점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고 해석해볼 수도 있다. 물론 참여도가 높은 학생들 중에서도 시설만 선택한 학생들이 있긴 하였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의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한 참여도만 높은 경우가 많았으며 교육과 진로에 대한 활동이 아닌 신앙, 공동체 활동 등에 대해서는 참여도가 저조하거나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살펴보았을 때 활동에 대한 참여도, 주도성, 적극적인 태도는 ‘학교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동의 여부’의 영향이 꽤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동의 여부’이다. 드리미학교에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며 개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드리미학교에 입학 후 많은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모두 공동체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보였다. 또한 계속해서 “완전한 ‘신앙공동체’가 이뤄지길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기도 하였다. 앞에서 “나의 학교생활을 만족하게 만든 요소를 선택해주세요”라는 질문에 시설만 선택을 한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학생들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모습을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한 참여도는 높으나 신앙 등에 대한 참여도가 저조한 학생들도 설문지의 공동체에 대한 질문의 답은 썩 긍정적이지 않았다. 참여도가 높은 학생들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보았을 때 명확한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공동체에 대한 ‘내적 동의 여부’가 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주도성, 적극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를 사랑하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학교 가치에 대해, 누구나 아는 가치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드리미학교를 사랑하는 나로서는 우리 공동체는 항상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공동체도 아니고, 신앙 공동체니까 이것을 지켜야할 의무를 내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관심 없는 친구들을 보면서..”(1번 인터뷰이)

“2기생의 중점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앞에 나서는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 공식적이지 않았더라도 소소하게 모였을 때부터 얘기를 많이하던 친구들이 지금 막 앞에서 하는 것 같단 말야?”(1번 인터뷰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학교를 사랑하고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한 실현을 분명 하고 싶을텐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5번 인터뷰이)

V.결론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거의 모든 학생이 드리미학교에 입학 후 참여도와 주도성 등에 대한 역량이 성장함을 알 수 있었다. 개개인의 기준이 모두 다르겠지만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 성장했다고 답변하는 모습이 주목해볼 수 있는 점인 것 같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계속해서 성장해나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변화해나가고 있다. 이에는 드리미학교의 학생 중심의 교육과 신앙, 공동체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드리미학교가 추구하는 참여도와 주도적인 모습, 적극적인 태도는 단순히 그냥 활동만을 많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신앙적, 공동체적인 교육적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내적인 동의가 이뤄질 때 드리미학교가 추구하는 진정한 교육과 신앙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 4: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역할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이라는 것을 거의 주지 않는다. 최근 들어 고등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고교학점제가 생겼지만, 이마저도 학생들에게 쥐어준 선택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의 교육 속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곤 본인이 어떤 시험을 볼지, 어떤 과목을 들을지와 같은 선택으로 입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직 다음 단계의 진학만이 목적인 이 선택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삶에 대한 배움이 아닌, 시험문제와 같은 객관식 선택만을 배우게 한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선택마저도 강제적 선택인데에 있어, 일반학교 학생들이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반해, 대안적인 교육을 하는 드리미학교는 학생들에게 기초적 틀을 제외한 모든 선택권을 쥐어준다.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수업을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준다. 이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권한, 참여의 권한 등을 학생들에게 쥐어주는데 학생들은 주어진 자율 속에서 계속해 결정하기를 반복한다. 그렇게 학생들은 선택의 주체가 되어 선택하는 법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된다. 선택에는, 자율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실제로, 드리미학교는 수업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없다. 학생들에게 시간의 자율을 주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시간에 맞게 수업에 가고, 자율적으로 활동들을 함으로 부여된 자율성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여진다.

일반학교와 드리미학교에서의 생활을 모두 경험 해 본 드리미학교의 몇몇 학생들에게 위 내용을 보여주었을 때 해당 학생 모두가 공감했다. 이에 자율과 책임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자율과 책임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주제의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역할에 대한’이라는 조건을 덧붙여 진행하게 되었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자율을 통해, 참여의 선택권 아래 자신의 의무를 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감을 가진다고 보여졌기에 역할이라는 세부 사항을 추가하게 되었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적 책임감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의 정도와, 학생들의 역할 참여가 자발적인지 대해 부가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택적인 역할들과 필수적인 역할들을 주어줄 때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이 어떠한지 뿐만 아니라,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 자율과 책임에 대해 학생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학생들이 얼마나 내재화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역할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드리미학교에서는 대부분 참여를 통해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에 따른 책임감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둘째, 드리미학교에 진학하고 난 후, 역할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변화가 있는가?

3. 연구문제 개념설명

가. 역할

우리 개개인에게는 모두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직책이나 임무가 아니더라도, 학교의 학생, 내 친구의 친구, 부모님의 자녀와 같이 여러 공동체에서 개개인의 역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역할은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은 바 직책이나 임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역할의 포괄적인 개념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부적인 직책과 임무 또한 하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책이나 임무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점과 능력과 같이 보여지지 않는 것들도 역할로 간주하고자 한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하며 역할의 의미를 말해주지 않고 학생들에게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보여지는 역할을 중점으로 말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듣는 역할’, ‘분위기 메이커’ 등 특정한 직책이나 임무가 아닌 것들을 역할로 꼽은 학생들도 있었다. 한 공동체에서 자신이 암묵적으로 맡게된 직책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의무일 수도 있다고 보아 이러한 전제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드리미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맡으며, 개개인에 따라 가지게 되는 직책과 임무가 다르다. 학교의 특성상 학생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에 개인별 역할 부여 또한 학생별 선택에 따른 차이가 분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의 일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존재한다.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부여된 역할이 많은 학생도 있다. 실제로 이 경우, 대부분 소수의 특정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하기에 반복적으로 참여해야만 하거나, 특정 분야의 활동에 학생이 참여한 사례를 기반으로 두고 계속 되어 권유를 받거나 참가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나. 자율과 자율

자율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 혹은 ‘자신의 욕망이나 남의 명령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객관적인 도덕법칙을 세워 이에 따르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흔히들 자율과 자유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이다. 객체에게 완전하게 주어지는 자유와는 다르게 자율은 스스로의 원칙이나 도덕법칙에 ‘따르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드리미학교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자율에 대한 점만은 다르다. 일반 학교에서는 교과목만을 가르쳐 주고, 학생 개개인의 자율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기관이기에 학생 개개인의 가치관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리미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원칙을 세워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 도와준다. 자율에 대한 스스로의 원칙이 어느정도 확립될 즈음, 학교는 학생들에게 개인의 자율을 온전하게 쥐어준다.

다. 책임감

책임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혹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를 의미한다. 자율과 책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곧

‘말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을 책임감이라 한다. 책임감이 ‘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서 개개인의 생각이 다른 만큼, 책임감을 느끼는 정도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책임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사람 별로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마련이다. 특히나, 트리미학교에서는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지게 되는 책임이 학생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있기에 책임감에 대한 더욱 색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일반학교와 트리미학교의 생활을 모두 경험 해 본 트리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할적 책임감의 차이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내는 것이다.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역할적 책임감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특정 요인에 따른 역할적 책임감에 차이가 있는지, 학생들이 받는 영향과, 변화하게 된 것들에 대해 연구했다.

1. 연구 대상 선정

이 연구의 대상은 트리미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다. 역할적 책임감이 주제인 만큼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 학생들의 역할을 중점으로 선정하고자 했다. 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은 트리미학교 학생(재학생 혹은 졸업생),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혹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학생회 직책을 맡은 학생 등이다.

2. 자료수집방법

일차적으로, 트리미학교에서 생활하며 학생들의 생활을 관찰함으로써 대략적인 분석을 통해 인터뷰 대상을 선출했다. 그리고,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학생 본인이 생각하는 참여도의 정도와 학생들의 참여가 자발적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알 수 있었고, 설문 내용을 기반으로 인터뷰 대상을 선정했다.

가. 인터뷰이 정보

인터뷰이이름	기수	기타 특이사항 및 선정이유
1번 인터뷰이	1기	트리미학교 학생회 직책
2번 인터뷰이	1기	트리미학교 학생회 직책
3번 인터뷰이	2기	트리미학교 학생회 직책
4번 인터뷰이	2기	설문 :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나, 열심히 참여하지는 않음, 모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
5번 인터뷰이	2기	설문 : 참여 정도 보통이나, 자발적 참여 아님

6번 인터뷰이	2기	관찰 : 집중적으로 특정 분야에 모두 참여함
7번 인터뷰이	2기	설문 : 참여하는 & 참여했던 활동 전혀 없음
8번 인터뷰이	3기	설문 : 거의 모든 활동에 참여, 모두 자발적 참여
9번 인터뷰이	4기	설문 : 여러 활동에 참여, 모두 자발적 참여
10번 인터뷰이	4기	설문 : 참여 활동 없음, 대부분 자발적 참여 아님

나. 인터뷰 질문

- 학교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거나 맡았었나요?
- 교내 활동들에 많이 참여하거나 참여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어떻게 이 활동들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 했던 활동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을 꼽자면 무엇인가요?
- 주어진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나요?
- 역할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 드리미학교에 오기 이전에도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해 오셨나요?

학생회 직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질문이다.

- 직책을 맡게된 계기 & 동기는?
- 학생회 내 구성원들과 잘 맞았나요?
- 학생회 직책을 맡으며 부담감, 책임감이 있었나요?

대상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녹취 동의를 받고, 대화 내용을 녹취하고 녹취록으로 정리해두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역할적 책임감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자가 드리미학교에서의 생활 경험을 기반으로 관찰을 통해 학생들을 분석했다. 또, 학생들의 인터뷰 녹취 내용을 기반으로 역할, 책임감이라는 연구의 주 키워드를 중점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III. 연구결과

1. 역할적 책임감에 대한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관점

먼저,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에 대한 관점을 기반으로 책임감에 대한 차이를 서술하고자 한다. 드리미학교 학생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 역할적 책임감에 대한 관점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역할의 참여만으로도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이다. 학생들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참여한 모든 것을 열심히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여기에 들어갔으면 그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그리고 뭔가 거기에 일원이 됐으니까 나도 거기에 잘 따르고 잘 해야된다는 그런 책임감들?” (9번 인터뷰이)

이 관점을 가졌다면 책임감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행하기에 역할에 대한 것들을 결정내리기까지 신중하게 고민해, 쉽게 역할에 참여하지 못하기도 한다.

“너무 많이 부족한 걸 알아서 지금 상태로 가 봤자 가르치는 걸 배우지 못 하겠다 좀 더 준비를 하고 가면 제대로 된 경험을 해 볼 수 있겠다 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솔직히 조금 아쉽죠.” (10번 인터뷰이)

다음으로,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역할의 공동체 내에서 본인의 지위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있는 책임감의 정도가 다른 경우이다. 해당 역할이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로 느껴지지 않거나, 한정된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책임감의 정도가 다르기도 하다고 보여졌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책임감의 관점에 대해 특별히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다수의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며 본인도 모르게 이를 언급했다.

“약간 그 역할마다 좀 다른데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잘 해야겠다 하는 역할이 있는 반면에 그냥 뭐 책임을 안 가지는 역할이 있는거 같기도 해.” (5번 인터뷰이)

“어떤 역할은 좀 흘려보내는 거 같기도 한데 어떤 역할을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9번 인터뷰이)

또 다른 경우는 개인의 역할 불이행으로 공동체에게 악영향이 끼칠까봐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이행하는 경우도 이다. 드리미학교에서의 생활로 예시를 들자면,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오불’(* 오불 : 거짓말, 절도, 술담배, 성적타락, 폭력이 없는)이라는 제도를 한 사람이라도 지키지 않았을 때, 100km를 공동체가 함께 걷게 된다. 이 사실을 알기에 더욱 학생들은 이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더욱 조심하게 되고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책임감을)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거 같은데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그런게 있었어요 내가 해야하는 것들 있잖아요 과제나 숙제 같은거는 좀 잘 안 했던거 같은데 뭔가 팀 과제 같은 거 있을 때는 항상 좀 남한테 피해 갈 수도 있어서 좀 열심히 했던거 같아요.” (2번 인터뷰이)

마지막으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이다. 본 연구를 진행할 때 역할에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것만을 생각했는데, 이 경우는 드리미학교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관점이다. 드리미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은 매우 다양하다. 드리미학교에서 진행하는 몇몇 활동 같은 경우 외부사회에서는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이를 이행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배움을 위한 활동이기에 실제로 활동을 통한 배움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그렇기에, 드리미학교에서 활동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보수와 같은 것들을 바라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전문성이 활동을 진행하고 돈을 받는 외부의 사람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 또한 아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졌다.

“책임감이 있는 분야가 아니야. 이게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분야가 아니야. 사실 이걸 약간 부가적인 활동이라는거지. 학교에서 사진을 찍는데 뭘 받는다면 책임이 따르겠지. 근데 이거는 자원봉사잖아. 거의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실력을 쌓기 위한 열정페이라는 거잖아. 그렇다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싶지도 않고 느끼고 있지도 않아.” (4번 인터뷰이)

2. 참여여부에 따른 책임감의 차이

다양한 종류의 역할 중 역할의 참여에 따른 책임감의 차이에 대해 연구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맡은 직책이나 임무가 있기에 의무를 가지고 이를 충실히 여긴다. 부여된 역할이 있기에 책임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역할의 참여 여부를 다루는 것이 아닌, 맡은 역할에 따른 책임감의 차이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미참여의 이유, 참여의 이유와 책임감의 상관관계의 중점을 두었다.

가. 미참여

드리미학교의 생활 속에서 역할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동아리활동, 학생회 부서활동, 각종 행사 도우미 등 다양한 역할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드리미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한 번쯤 학교에서 제시하는 역할에 참여해보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 내 활동이 많고 참여도도 일반학교에 비해 높다. 실제로 드리미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을 때,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전교생 55명 중 9%이다.

그렇다면, 드리미학교 생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역할 곧, 활동들에 참여하지 않는 9%의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그리고 드리미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주어지는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실제로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본인이 아래와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과제하는 학생의 역할”, “팀장의 역할”, “과제 하지않는 역할” (2번 인터뷰이)

“학생으로서의 역할”, “친구로서의 역할”(5번 인터뷰이)

“4기생 중 한 명” (10번 인터뷰이)

또, 다르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해주는 역할’, ‘그림그리는 역할’, ‘관찰하는 역할’, ‘연기자’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재능을 통한 역할 또한 언급된 바 있다.

“기도하는 역할” (8번 인터뷰이)

“저는 잘 웃는 역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웃게 해주는 역할 그리고 신경을 많이 써주는 역할이고 뭐든 푹푹하게 하려는 푹푹이 역할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푹푹하게 노력하는 역할” (9번 인터뷰이)

학생들은 직책이 아닌 위와 같은 역할들을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역할이라고 하기도 했다.

“나는 그냥 친구로서 역할이 나는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 (5번 인터뷰이)

“사람이 성격상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친구가 있고, 듣는 역할을 좀 더 잘 수행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말을 하면 무조건 일단 듣고 공감을 해 주는 포지션을 먼저 취하는 게 내 성격이라서 그래서 남들의 고민과 남들의 이야기들을 듣는게 지금도 많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게 보람차다 라고 느껴져서 의미 있다... 모든 사람들의 말들은 일단 내가 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를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상대가 말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듣는 의무감? 이런거 때문에 책임을 느끼는거 같애... 듣는 태도는 제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좀 많이 받아요 책임을 느끼는데 일단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7번 인터뷰이)

위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역할을 맡고 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직책이 아닌 역할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겠다, 역할이라고 정의내린 기본적인 역할들을 역할로 느끼지 않는 학생도 있었다.

“웃게해주는 역할 이런거에서는 책임감을 못 느끼는거 같아요” (9번 인터뷰이)

“특히 좀 과제에는 그렇게 책임감을 초반에는 좀 못 느꼈고 1,2학년 때는 3학년 때도 좀 못 느끼긴 했는데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과제는 숙제 같은 거는 좀 그런 거는 좀 잘 안 했던 거 같은데” (2번 인터뷰이)

“내 생각에는 그거(기본적인 역할이라 칭한 것들)는 주 역할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경험 같은데”(4번 인터뷰이)

나. 참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책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역할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책임감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아닌 자발적이지 않은 참여,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여, 같은 역할을 가졌으나 사람에 따라 다른 것, 타인의 시선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에 따른 책임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드리미학교의 학생 91%로는 한 가지 이상의 직책 및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자발적으로 역할에 나서서 참여한 것일까? 설문을 통해 알아본 결과 27%의 학생들이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발적 참여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셀렉이 됐어 갑자기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역할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됐어… 아니 시키면 해야지… 할 줄 모르는데 할 줄 모르는데 강 시켜. 그런 게 있었어 시키니까 그냥 연습했어.” (8번 인터뷰이)

자발적이지 않은 참여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활동들에 소속해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관찰을 진행 해 보았다. 그 결과, 자발적이지 않은 참여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활동이기에 특정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뒤에 또 다른 설정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이 학생들이 이전에 한 차시 이상 동일한 종류의 활동에 참여를 했기에 선생님께서, 친구들로부터 권유가 들어온다는 사실이다. 아예 처음부터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던 학생에게는 해당 역할을 이행했던 이전 사례가 없기에 특정 분야에 대한 권유가 들어오지 않음을 깨달았다. 자발적이지 않은 참여가 일어나는 학생들이 시작 문을 열어두었기에, 발생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자발적인 참여의 경우를 이야기 하자면, 73%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설문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변했다. 드리미학교에서의 대부분의 참여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다수의 학생들이 설문에서 이와 같이 답한 듯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책임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 서술 하고자 하기보다, 내용에 더 깊이 들어가 ‘같은 역할을 가진’이라는 조건을 추가해 세부적인 연구 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동일한 학생회 직책을 맡은 학생들의 책임감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직책들 중에서도 학생회의 특정 직책을 정하게 된 이유는, 바로 동일한 직책을 가졌음에도 이 직책을 가진 이들로부터 서로 다른 책임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인터뷰에 응해준 학생들이 직책을 맡던 시절, 그들을 관찰 했기에 이러한 책임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욱이 인지하고 있었다. 각각의 학생들은 직책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해결해야 할 일들로부터

부담감을 느낀 경우, 직책에 대한 부담감이 아닌 직책의 이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경우, 그리고 직책을 맡음으로서 보이게 된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담감.. 없었다고 하면 진짜 거짓말이긴 하지 사실, 부담감이 많았지.. 되게 많이 올랐던거 같아... 사실 트리미학교 되게 바쁘고 나 스스로 할 것도 되게 많고, 근데 막 이벤트도 준비해야 하고, 마을반상회도 준비해야하고, 나 앞에서 말하는거 진짜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야... 그런 짜잘짜잘한게 사실 처음이라서, 처음이라서 좀 그랬던거 같애.” (1번 인터뷰이)

“사실 부담감 책임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 저는 좀 안 느끼고 있어요. 좀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 진짜 부담감을 느껴본 그런게 있다면 직책을 맡았다고 부담감을 느끼는 것 보다 나라는 사람이 삶을 사는데 내가 잘못된 게 있을 때 직책을 가지고 있어서 너가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랬냐는 꼬리표가 달릴까봐 그게 좀 그랬던 적은 있는데, 직책을 맡아서 내가 못할 거 같아서 두려움을 느끼고 막 부담감 느낀 적은 없는 거 같아.” (2번 인터뷰이)

“(부담감)있죠! 근데 이것을 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게 ... 직책을 맡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만큼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전혀 고민해보지 않았던 그런 생각거리들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지 ... 이렇게 학교 들어와서 부담감을 느끼고 쉽지 않았던적은 진짜 이번년도 들어서 처음인 것 같아” (3번 인터뷰이)

3. 책임감의 영향력

책임감이 ‘마음’이라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실제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에 따라 본인의 생각, 행동, 말 등에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트리미학교 학생들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은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학생 인터뷰를 진행 해 본 결과 시간과 건강, 이미지 변화, 개인적 발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졌다.

가. 시간과 건강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되면, 가장 먼저 소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시간적인 것들이 삶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나 개인의 할 일이 많아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트리미학교에서는 더욱이 그렇다. 학생들은 어떠한 역할이든 역할을 맡음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지나가다가 제가 하고 싶다고 자원 한거긴 한데 그래 가지고 그렇게 그 계기를 시작으로 한 3일 동안 밤을 새면서 전사회작업을 참여했는데 그래서 제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 이데알레 영업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특정 직책 때문에 저는 특정요일에 자율이 없어요.”(9번 인터뷰이)

“활동 시간이 솔직히 계산이 안 되는데 (역할을) 하루에 한.. 그 정규수업 시간들을 제외하면 항상 하는 것 같은데” (8번 인터뷰이)

그리고 실제로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 육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드림미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하기 위해 잠을 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건강을 챙기는 것 또한 자율적인 부분이기때문에, 모두가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담, 그런 것 때문에 좀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했고 이번 학기에 그 코로나, 이번 학기맞지 코로나 한 게 후유증으로 두통이 있었는데, 그 두통이 잠을 잘 때 있는 거야.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 자 봐야 두세 시간을 잤었고 학기 초에 그렇게 계속 자다 보니까 반응이 확 오는 거야.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일상생활하는데도 좀 영향이 가고 면역력도 확 낮아져 가지고 …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부담 … ” (3번 인터뷰이)

“피곤하다? 근데 그거는 어떤 일을 하든 뭔가를 하나를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6번 인터뷰이)

나. 이미지 변화

다수의 인원이 하지 않는 특정한 역할을 가지게 될 때, 특정 인물이 특정 역할에 해당된다는 것이 자주 보이고 그렇게 알려지게 되는 순간, 이 역할이 특정 학생에게만 고정된 듯한 느낌을 준다. 드림미학교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그냥 사람이 이미지가 변해서. 이미지라는 게 뭔지 알잖아. 약간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넘어서 이게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통, 사람을 결정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좀 더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 사실 이게 결국은 내 정체성, 내 캐릭터 이미지라고 … ” (4번 인터뷰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럼 여기 000 있네. 하면 되겠네 해결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어디 어디 어딜 프로젝트를 가든 난 항상 그 역할. (역할) 해결사?” (8번 인터뷰이)

이러한 이미지 변화로 인해, 또 다른 영향을 이어서 받는다. 더욱 이미지에 해당되는 역할에 몰입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고, 학생을 향한 다수의 생각 속에서 이미지 고착화로 인해 더 큰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캐릭터도 있는 거잖아. 이게 외면적인게 내면적인 것 까지 바뀌기는 그렇게 빠르게 바뀌지 않았는데 역할을 시작한지 ... 일년 조금 넘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내면까지 바꿀 수 있는 기간은 되지 않지 않았나. 뭐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크게 바꾼 건 그냥 조금 더 그런것들에 노력하게 된. 그런 좀 다른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들?” (4번 인터뷰이)

“압박감이 진짜 커 그리고 되기 약간 그런게 뭔가 부담스러웠어 어차피 너는, 어차피 너는 원래 하나까, 어차피 너는 다 할 수 있잖아 아니 사실 아니거든 진짜 아니야. 근데 너무 그걸 당연하게 여겨주니까 약간 그게 조금 뭐라해야되지 부담되고 물론 그렇게 나한테 너무 쉽게 던지는 말처럼 느껴졌어 지금은 괜찮은데, 작년엔 특히 그랬어.” (8번 인터뷰이)

다. 개인적 발전

발전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혹은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계속된 노력을 했을 때 발생한다. 드림미학교 학생들은 역할을 맡음으로서 역할의 임무를 완수하며,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내기도 한다.

“말하는 것도 소심한 내가, 목소리도 좀 커지게 변화하고 남이랑 얘기할 때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연기자였던 거 같아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변화했다 ... 제가 3년 동안 바뀐 습관이 있다면 무책임한 가벼운 말들을 뱉는 습관들이 변화가 된것 같아요 무거운, 아 무겁다가 아니지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깊은 교제를 하는 차원적으로 성장하는 거 같아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효율적으로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변화가 조금 있었던 거 같아요” (7번 인터뷰이)

“지역연구개발프로젝트라고, 자기가 뭘 해서 인터뷰를 신청하는건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자기한테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나도 할 수 있고 스스로도 하고 사람들이 믿어줘서 책임감도 생기고...”(공동인터뷰활용)

4. 드림미학교 진학 후 변화

진행된 설문에 따르면, 드림미학교 재학생들 중 96%가 드림미학교에 온 후 변화했다고 한다. 교육이 진행되는 것을 관찰해 본 결과 실제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계기들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부정적인 면에서의 변화가 없다고 단정짓지는 못하겠지만, 이에 반해 긍정적인 변화가 큰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설문 중 학생들이 드림미학교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드림미학교 재학생 중 96%의 학생들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드림미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일반학교와 대비하여 드림미학교에서 변화한 점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학생들은 드림미학교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신이 선택한 것들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 능동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끝까지 이행하는 힘을 기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드림미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적극적으로 바뀐 학생도 있었다.

“남들 영향을 안 받고 간섭을 안 받고 나 혼자 독립적으로 뭔가를 계속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협력하는 역할을 좀 더 선호하게 된 거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능동적 역할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기 싫은걸 끝까지 책임지는 방법을 알았어 ... 여기서 근데 좀 다르게 중학교 때는 하기 싫은 걸 끝까지 해야해서 눈물나게 싫은거야. 그리고 왜 해야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기 싫어서 끝까지 해본 적이 없었어... 근데 여기 와서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고 그게 더 많은 이유는 되게 학생들에게 많이 맡겼기 때문에 ... 하나하나 개입하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인지 봐주시면서 너가 할 수 있을거라고 믿고 권한을 많이 주시는거. 이런거 되게 낯서니까 힘들었는데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이게 의미있다는 걸 아니까 어려워도 끝까지 해보자... 그 생각이 나를 과제도 그렇고 다른 모임도 그렇고... 나를 끝까지 하게 만들었어.”

“이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하고 가야겠다는 그게있어서 모든 해볼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느낌이 없어서 뭔가 하고 후회하자라는 느낌이 없어 후회할꺼면 그냥 안 하는게 낫지 그게 그거여서 뭔가 되게 소극적이었고 이거 할래? 그러면 아 네가 해.. 아 근데 관심 있는 건 진짜 적극적으로 하는데 관심 없는 건 진짜 엄청 소극적인 편이었어요.”

IV. 결론

드리미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을 관찰해보았을 때, 학생들 별로 느끼는 부담감이나 하고 있는 노력의 정도가 달랐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의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책임에 대해 개인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할에 따른 책임감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드리미학교에 진학 후 학생들이 변화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학교와 드리미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배움 그리고 경험이 확연하게 다르기에 책임감에 따른 차이 또한 존재할 것으로 보여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할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역할적 책임감에 대한 관점은 역할 참여 자체로 책임감을 느낌, 역할에 따라 가지고 있는 책임감의 정도가 다름, 역할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음으로 나뉘어진다. 학생들에 따라 관점이 확연하게 다르기에 학생들의 말과 행동 등 표면적인 것들을 통해 전해지는 책임의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었다. 학생들은 각자의 성격에 의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드리미학교에서의 경험에 의해 얻게된 관점이라고 보여지기도 했다.

둘째, 참여여부에 따른 책임감의 차이는 미참여와 참여로 그리고 참여 중에서도 자발적 참여와 자발적이지 않은 참여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자발적으로 같은 역할에 참여한 학생들의 책임감의 차이에 대해 부가적으로 알아보았다. 연구를 통해 역할에 참여하는 학생들만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참여하지 않고 ‘드리미학교 학생’이라는 역할과 같이 기본적으로 역할만으로도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각각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느낀 부담감을 수치로 나타내기엔 모두 개개인의 기준이 다르기에 어렵지만,

연구자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직책의 위치에 따른 부담감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책임감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졌다.

셋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으로 인해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과도한 소비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이미지가 고착화 되는 것, 또, 개인적인 발전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확인했다. 과도한 책임감은 학생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에 이에 따라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참여의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보였다.

5. 연구 5: 드리미학교 친구들의 신앙은 잘 성장하고 있는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드리미학교의 설립목적은 여러가지 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드리미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학교 설립 목적 3가지가 있다. 첫째,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것, 둘째 거듭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 셋째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 드리미학교의 신앙교육 없이 드리미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 드리미학교의 모든 교육은 신앙적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교육에 앞서 신앙적 배움이 먼저 된다. 일반고등학교 수업을 대체하는 드리미학교의 선택활동은 모두 신앙적 성장을 염두해두고 만들어졌다. 드리미학교 신앙교육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다. 5불이라는 드리미학교의 제도이다. 5불은 성적 타락, 술과 담배, 거짓말, 폭력 그리고 도둑질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5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금지하는 것들의 반대 가치 정직, 정의, 절제, 성결 그리고 평화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다. 일반학교에서는 인성교육으로 분류되지 만, 드리미학교에서는 이런 가치의 기반을 성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5불제도를 실시하여 성경적 가치를 지킬려한다. 5불 제도에 걸리는 일이 학교에서 발생하면 학교의 모든 수업은 중단되고 금식에 들어간다. 5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그 어떤 교육도 신앙적인 가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드리미학교의 가장 중요한 배움은 언제나 신앙이며 모든 수업과 배움에 가장 기본이되는 것도 신앙이다.

드리미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동료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분석해본 적이 없다. 우리가 학생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하며 조사한 이유는 신앙이란 것은 객관화시키거나 보편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양적연구에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신앙은 언제나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적연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생님이나 외부인일 경우 신앙에 대한 분석이 정확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솔직한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앙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보아왔고, 또 그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더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학생연구자가 가지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드리미학교는 이제 첫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가 되었다. 이제는 과연 학생들의 신앙이 잘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분석된 자료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 학생들인 우리가 처음으로 다른 학생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문제

주제: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신앙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질문1: 최근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질문2: 최근에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가?

질문3: 주변 친구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가?

필수 질문은 이렇게 3개가 있었고 나머지 질문들은 전부 인터뷰 대상자의 이전 답변들을 기준으로 그때그때 질문을 만들었다.

3. 연구문제 개념설명

이 보고서에서는 계속해서 신앙과 신앙적 고민, 신앙 성장이라는 단어들을 쓸 것이다. 하지만 이 세 단어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객관적으로 이 단어를 정의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세 단어를 보고서에서는 어떤 의미로 적을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려고 한다.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내리는 것은 굉장히 난해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뜻의 신앙보다는 연구자들의 기준에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적어보려고 한다. ‘신앙적 고민’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신앙적 고민’을 두 가지로 정의했다. 첫째는 ‘나의 삶을 신앙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것’이라 정의했고 둘째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과정’이라 정의했다. ‘나의 삶을 신앙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정의한 이유는 우리가 주로 신앙적 고민을 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이때 신앙적 관점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적 고민’을 ‘나의 삶을 신앙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적었다. 둘째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이유는 신앙적 고민들을 통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들을 통해 나에 대해 더욱 알게 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

‘신앙 성장’은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 트리미학교에서 분명히 많은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했다. 우리가 신앙 성장의 기준을 정해보자면 2가지가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다. 신앙적으로 성장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나타내는 사례 중 하나가 신앙적 고민, 신앙활동을 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을 늘렸던 점이다. 두 번째로 ‘삶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으로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변한다. 평소 애했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면서 더욱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러한 점들이 삶에서 신앙적 성숙함으로 드러나게 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선정

연구 대상(친구들)은 전체 설문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정했다. 가장 많이 고려한 답변은 ‘최근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최근 신앙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주변 친구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이라는 질문에 관한 답변이다. 신앙적 고민을 하지만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경우, 신앙적 고민도 하지 않고 성장도 하지 않은 경우, 신앙적 고민을 하지는 않음에도 신앙적으로 성장한 경우, 다양한 경우의 학생들이 있었다. 최대한 객관적인 신앙 성장에

대해 연구하고자 다양한 경우의 학생들을 골고루 인터뷰했다. 그렇게 선정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10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했다. 지금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 20%에 해당하는 학생 수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

2.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 방법에서 첫번째 고려사항은 학생들에게 돌린 전체 설문이다. 전체 설문 내용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두번째는 인터뷰이다. 전체 설문을 기준으로 선택한 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깊이 있는 자료를 얻고자 했다. 1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적게 되었다. 인터뷰의 질문에는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보편적인 질문만을 소개하겠다.

첫째, 신앙적 고민을 하고 있는가?

둘째, 신앙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셋째, 신앙성장에 있어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나머지 질문들은 인터뷰 답변자의 답변에 따라 달랐다.

3. 분석방법

우리의 주된 연구자료는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분석하는 방법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분석을 통해 키워드를 추려냈다. 키워드를 추려낸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아야하는 내용인가?’, ‘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가?’, ‘제시하려고 하는 근거가 신빙성이 있는가?’이다. 그 키워드를 통해 보고서를 적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한 점은 친구들의 인터뷰 답변에 의심을 품지않고 철저히 신뢰했다는 점이다.

III. 연구결과

10명의 학생들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인터뷰를 해주었는데 10명의 학생 모두에게서 같은 공통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드리미학교의 문화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개인적인 인간관계, 또 누군가는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복음학교 등등.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양한 답변을 6가지의 키워드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6가지의 키워드에는 ‘모태신앙과 비모태신앙인’, ‘급진적 변화’와 ‘점진적 변화’, ‘온실과 흔들림’, ‘신앙과 공동체의 유기적 관계’, ‘대화와 나눔’, ‘신앙적 예외’이다.

1. 모태신앙과 비모태신앙인

드리미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종류 2가지였다. 모태신앙과 비모태신앙이다. 드리미학교에 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모태신앙이고 소수의 학생들이 비모태신앙으로 드리미학교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모태신앙과 비모태신앙은 신앙 성장의 방향이 어떻게 다를까?

모태신앙인 학생들이 드리미학교에 와서 느낀 공통점들이 있다. 바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모태신앙인들은 학교를 오기 전,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당연히 믿어야 한나라는 분위기로 큰 고민 없이 믿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는 학생도 있었고 구원에 의심을 가지는 친구도 있었다. 또 하나님께 하는 자신의 고백이 진심이 아닌 거짓된 고백이란 생각이 든다는 친구도 있었다.

“아무튼 내가 겪었던 지금까지 겪었던 신앙적인 고민은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게 정말 믿음인걸까.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일단 나는 성경책을 내가 집중해서 읽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집중해서 읽어본 적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뭐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모태 신앙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만 생각하고 그 이상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생각하는 시간을 주잖아. 그래서 ‘아~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천국을 못 가겠다는 것을 깨달았고...’

“살짝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맞는지 모르겠어. 뭔가 그냥 모태 신앙이여서, 그냥 당연한 듯이 믿었고 아직도 거기에서 완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기도할 때 내가 한마디를 해도 이게 내 진짜 진심인지 모르겠어. 이게 진짜 완전 그런데 이게 내 진심인지 모르겠고...”

모태신앙인의 상당수가 드리미학교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신앙을 되돌아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신만의 신앙을 정립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모태신앙은 어떻게 성장할까? 모태신앙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며 성장한다면 믿지 않았던 친구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

“처음 복음사경회를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나. 정말 처음에 복음사경회를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근데 믿음이 없던 것을 떠나 신앙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나에게 있어서는 주변 사람들이 다 이해가 가지 않았고 내가 학교를 잘 왔나라는 생각을 했어.”

“완전 기독교가 바탕이 된 학교잖아. 나만 빼고 다 믿고 음…그게 있었어. 소외된 것 같은? 다 신앙적인, 선생님이 뭐라고 안 그래도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런 친구들인 것 같은거야. 그래서 이 학교를 다니면서 찾아야겠다,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사실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의 몰랐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내 입장에서는 무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하다보니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

비모태신앙인의 경우 상당수가 드리미학교를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접하는데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이 낮설었다고 표현한다. 두려움과 거리감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이런 두려움과 거리감은 스스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다. 주변 친구들을 보며 ‘나도 신앙적으로 뭐라도해야하지 않나?’라는 갈급함을 느낀다. 갈급함을 느낀 학생들의 행동 변화는 여러가지로 나뉘는데, 기도를 하고 신앙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며, 선생님과 상담을 하기도 했다. 개인의 노력이 결국 믿음이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질적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2. 점진적 변화와 급진적 변화

앞서 이야기한 점이 ‘모태신앙과 비모태신앙은 어떤 성장의 차이를 가지는가?’에 대한 점이라면 지금은 ‘점진적 변화와 급진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점진적 변화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급진적 변화는 비교적 단기간에 빠르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드리미학교의 학생들의 성장은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

우선 ‘점진적 변화’를 하고 있다고 인터뷰했던 친구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자. 이 응답자의 경우, 인터뷰를 하기 전부터 연구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친구였다. 설문지의 많은 응답자들과는 달리 신앙적 고민을 하지 않지만 신앙이 성장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인터뷰를 통해서 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드리미학교를 오기 전에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드리미학교를 오고 나서는 기도하는 습관, 찬양을 할 때 가사를 묵상하는 습관등이 많이 길러졌다고 답변을 했다. 이유가 궁금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큐티, 복음사경회, 주일예배와 다함예배 등 평소 일정을 소화해내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런 평소 일정이 자신을 더욱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답변을 했다. 이 응답자의 성장이 ‘점진적 변화’라고 생각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 정도의 생활을 했다가 이제 드리미학교 와서…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찬양을 했는데 가사 묵상을…”

“주일예배, 다함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큐티를 진짜 안 했는데 큐티를 하게 된 것. 그리고 약간 기도회가 자주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 스스로 이거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밤마다 기도한 것 같아서. 많은 기도의 시간과 다함예배 그런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 인터뷰 응답자의 인터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신앙 성장은 항상 신앙 고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선입견이 드러난 것 같다.

둘째는 ‘급진적 변화’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앞서 이야기한 ‘점진적 변화’의 경우와 다른 경우다. 점진적 변화는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천천히 변하는 경우였다면 급진적 변화는 특별한 사건을 이유로 성장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급진적 변화에 대한 2가지 인터뷰가 있었는데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인터뷰 응답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보다는 요약과 정리가 된 분석 내용을 소개하겠다.

첫번째 경우를 소개하겠다. 처음 인터뷰자의 경우, 꿈에서도 좌절되고 많은 힘들 것들이 겹쳤던 이번 학기 초반에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 본인이 겪었던 과거를 계속해서 회상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다. 지금의 ‘나’가 있기까지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날 ‘자동적으로’ 무릎이 구부러지며 ‘자동적으로’ 회개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어떤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경험했다. 방황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곁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평소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이 특별한 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이 친구의 신앙이 급진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계기는 부모님의 편지를 읽는 날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보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오지 못한 것 같아서 부모님의 편지를 읽었을 때 많은 회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게 되었다.

첫번째 경우, 두번째 경우 모두 인터뷰 응답자의 개인적인 사연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각색이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급진적 변화’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낀점이 있다. ‘급진적 변화’의 출발점은 모두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두 응답자의 경우 모두 각각의 개인 사정 속에서 신앙적 고민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급진적 변화, 점진적 변화 연구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급진적 변화와 점진적 변화 출발점이 다르다는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학교가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학교의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온실과 흔들림

연구자들은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드리미학교의 신앙생활이 온실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 온실은 ‘식물이 잘 자라게끔 기후나 습도 등 모든 것이 최적화 되어 있는 공간’이다.

드리미학교도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큐티, 복음사경회, 다함예배, 주일예배 등 많은 신앙활동들이 준비되어있다. 앞서 나온 ‘점진적변화’도 온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드리미학교 환경 속에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신앙과 밀접한 드리미학교의 온실이 충분히 학생들에게 건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밑의 인터뷰 내용은 신앙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지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답변을 한 친구의 인터뷰 답변 내용이다. 이 답변을 통해서 학생들이 크게 시험이나 고민에 빠지지 않아도 주위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신앙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일예배, 다함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큐티를 진짜 안 했는데 큐티를 하게 된 것. 그리고 약간 기도회가 자주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 스스로 이게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밤마다 기도한 것 같아서. 많은 기도의 시간과 다함예배 그런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급진적 변화를 통해 신앙성장을 이룬 경우를 보았을 때 ‘신앙적 흔들림’이 영향을 준 경우가 있었다. 온실이 특정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주면서 다른 방해요소 없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게 도와줄 수 있지만 너무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앙적으로 무뎌지는 학생들이 생긴다.

무뎌진 학생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신앙생활보다 자신의 신앙을 흔드는 외부적인 요인들을 통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또 그런 외부적 요인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

“OO 쌤이 내 신앙을 많이 흔드셨단 말이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신앙을 발전시키려고 다짐할 때 흔드셔서 더 신앙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학생들마다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기에 드리미학교는 학생들의 신앙 성장 방법을 조사하고 각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에 적절한 신앙적 환경을 개별적으로 제공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신앙과 공동체의 유기적 관계

드리미학교의 환경 특성상 신앙과 공동체가 분리될 수 없다. 이런 조건이 드리미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된다. 일반중학교나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교회 공동체와 배움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드리미학교의 경우 나의 배움과 공동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고등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앙적 배움이 일어난다. 드리미학교는 신앙공동체 속에서 어떤 배움을 이루어가고 있을까?

우선 공동체를 대하는 면에서 성숙해진 경우가 있었다. 이전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역시 존중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나의 힘으로 다 사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와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신앙공동체라는 단어에 걸맞게 많은 학생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모습 역시 많이 보여주었다.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평소의 고민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는 모습 역시 드리미학교의 성공적인 신앙공동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대게 굉장히 털어놓을 수 있는 애들이니까 개네가 내 신앙을 도와주긴 하지. 그러니까 같이 기도를 한다거나 계속 내 주변에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내가 신앙에 물어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그런건 있지.”

“그래도 다른 친구가 신앙에 대해 얘기할 때 신앙에 대해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더 간절히 찾고 노력하는 것 같아.”

“예배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일부러 아파서 안 오겠다는거야. 그래서 기도했지 애가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감사한 시간임을 알고 내일 꼭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기도했지.”

신앙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성숙해지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었지만 공동체가 학생의 성숙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좋았다.

“이제 성화의 과정을 알게 되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을 알게 될 때 대개 이제 나한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내 본보기가 되어주신 분들이 드리미학교 선생님들이예요.”

하지만 드리미학교의 공동체가 학생들의 신앙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공동체가 학생의 신앙과 성숙을 이끌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찬양하는 순간에는 신실한 척했지만 평소 생활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일 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부정적인 것은 평소에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는건데 나도 포함이 되는 것이긴 한데 예배드릴 때만큼은 누구보다 신실한 척을 했다가 평소에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는 규정도 어기고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가 의심이 들만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찬양하는 순간과 학교 생활의 거리감이 느껴질 때마다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직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갈등이 들 때마다 거리감을 느껴요.”

이런 거리감을 느끼는 친구들의 수가 소수는 아니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이 거리감을 스스로 좁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예배와 일상의 격차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런 거리감이 나타나는 이유가 찬양팀의 예배이기 때문에 큰 해결방안은 없을 것 같다.

5. 대화와 나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트리미학교 학생들의 신앙성장에 타인과의 대화와 나눔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타인과의 대화는 크게 선생님과 학생간의 대화와 학생과 학생간의 대화 이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선생님과 대화의 대화를 통해 신앙적으로 성장했다는 학생들의 답변이 있었다. 선생님과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최근 어떤 신앙적 고민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나누기도 하고 선생님께 신앙적 조언을 듣기도 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신앙적으로 힘들고 무더질 때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먼저 상담을 요청하며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저는 OO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게 됐어요.”

연구자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 학교에서 계속된 신앙활동과 신앙 지식적인 면을 채우는 수업으로 인해 신앙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모든 신앙활동들이 질린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때 선생님 한 분이 먼저 상담을 요청하셔서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다. 해주셨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심을 드러냈는가 한 번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이었다. 그 신앙상담이 내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그 당시 누군가 바로 잡아주지 않았다면 신앙에 대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찌면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갔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내 신앙 상태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갔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간의 대화이다. 트리미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친구, 선배, 후배와 신앙적으로 대화를 자주 한다고 답변했다.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 자신의 신앙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들으면서 신앙적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방향을 잡아간다.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들을 통해 ‘뿌듯함’과 ‘자신이 신앙적으로 성장했다라는 성취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대화와 나눔이 동역자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자신의 신앙 성장에도 도움을 많이 준다. 트리미학교에 대화와 나눔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지금 이 드리미학교에서는 다 같이 신학 공부를 하고 복음을 듣고 하면서 같은 내용에 대해 나눌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드리미학교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눔들이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맞고 편한 사람들 앞에서는 솔직하게 전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6. 신앙적 성장의 예외

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10명의 학생들 중 9명이 드리미학교를 와서 신앙적으로 성장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명의 학생은 드리미학교를 와서 신앙이 오히려 더욱 안 좋아졌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 드리미학교 환경을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신앙을 성장하는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신앙 성장에 있어 개인적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인터뷰이의 입장에서는 드리미학교의 수업이 특정수업을 제외하면 신앙과 연결된 점을 찾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또 오히려 교회 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을 했지만 현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드리미학교가 ‘대다수 학생들에게 신앙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예외 상황도 있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며 ‘예외 상황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결론 역시 낼 수 있었다.

IV. 결론

드리미학교는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이 입학한다. 신앙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이 다르며 학생들은 각자 개인의 방법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드리미학교라는 신앙적 환경이었다. 환경에는 복음사경회, 소그룹 성경공부, 큐티, 예배 등과 같은 다양한 신앙활동들과 드리미학교 신앙공동체, 학생과 교사와의 대화와 나눔 등이 있었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신앙성장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기에 드리미학교는 학생들의 신앙성장 상태와 신앙성장 방법을 조사해 개개인에 맞는 신앙활동과 신앙적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드리미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가치이기도 하며 다른 곳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신앙공동체가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신앙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

공동체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서로 신앙적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며 같이 신앙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동역자의 관계를 형성해나간다는 점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라는 결과 나왔다.

이 모든 결과를 보고 드리미학교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지만 더 무뎌지는 학생들도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보았다. 세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드리미학교 환경이 학생들의 신앙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드리미학교에서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고민과 이유로 성장하고 있다.

셋째, 제공된 환경에서 학생들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적 성장의 정도는 달라진다.

6. 연구 6: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소속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청소년들이 많은 인간관계를 맺는 장소이자, 인간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환경 중 하나다. 각 학교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지만, 학교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모든 학교가 동일하다. 그런데 경쟁을 하는 일반 학교와는 달리 협력을 하는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공동체’라는 이름을 사용해 그것을 추구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맺어질까? 라는 의문점을 던져본다.

본교인 드리미학교는 공동체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학교다.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하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드리미학교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평생 동역자를 만나는 것.”을 강조한다.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되기 위해 불신의 찌꺼기가 되는 것들이 다 제거 되어야만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 불신의 찌꺼기들을 본교는 ‘5不容’이라 칭한다. 5不容에는 폭력, 성적 타락, 술담배, 거짓말, 도둑질이 있다. “이 오불용을 통해서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신뢰 자본을 쌓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드리미학교를 설립한 이사장은 말한다. 드리미학교가 이렇게까지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유는 드리미학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즉,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평생 갈 동역자를 이 곳에서 만들기 위해 공동체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드리미학교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특수성이 있기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작하게 되었다. 드리미학교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학교가 추구하는 대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들은 어떻게 맺어지는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은 무엇을 느끼며,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느끼는 공동체성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했으나, 공동체성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체성 보다는 좀 더 쉬운 개념인 ‘소속감’에 대해 몇 명의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소속감’이란 자신이 어떠한 집단이나 그룹에 소속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것 또는 일을 말한다.

2. 연구문제

소속감을 주제로 한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소속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3. 연구문제 개념설명

가. 공동체성

공동체성이란 무엇일까? 사회에서는 공동체성을 공동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성품이나 특성으로 정의한다. 즉,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가진 여러 집단을 가리키는 사회적 용어다. 사회에서 정의하는 공동체성이 아닌, 공동체성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시도했으나 그것이 너무나도 포괄적이기에 정의하지 못하였다.

나. 소속감

그렇다면 소속감이란 무엇일까? 소속감이란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소속감이라고 한다. 더 쉬운 개념으로 소속이란 무엇일까? 소속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 그룹 등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팔려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말한다. 공동체성과 마찬가지로 소속감도 하나의 용어로 정의를 하고 싶었으나 개개인이 느끼는 소속감의 크기와 차이가 다양했기에, 소속감을 하나로 정의 내리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그 판단하에 소속감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지 않았고, 학생 개개인이 정의하는 소속감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선정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소속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연구 주제는 드리미학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꼭 필요했기에, 드리미학교에 속한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했다. 현재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가. 설문지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드리미학교 사례 연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개인의 연구 주제에 필요한 자료와 인터뷰 대상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각자의 질문을 하나의 설문지에 모아 현재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체 설문지를 보냈다. 당시에는 ‘소속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 ‘공동체성’과 관련한 질문을 설문지에 넣었다. 질문은 아래와 같다.

- 나는 드리미학교 공동체 생활에 만족한다.
- 나는 드리미학교에서 공동체성을 느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동체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응답해주었다. 하지만 소수의 학생들은 공동체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해주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는 만족하지만, 공동체성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에는 만족을 하지만, 만족하는 만큼의

공동체성은 많이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었다. 이것을 통해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공동체성이란 무엇인지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동체성과 관련된 인터뷰 질문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공동체성을 정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설문지에 응한 대부분의 친구들 역시 공동체성의 범위가 넓어서 공동체성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못해 질문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 인터뷰

본 연구의 큰 연구문제는 ‘소속감’이기에 ‘공동체성’에 대한 응답을 받은 위 설문지를 기반으로 인터뷰 대상을 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소속감과 공동체성이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설문지를 기반으로 인터뷰 대상을 정하게 되었다. 설문지를 기반으로 인터뷰 대상을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동체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공동체성을 많이 느끼는 학생
- 공동체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공동체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학생
- 공동체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공동체성 또한 많이 느끼지 못하는 학생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졸업생의 수가 대부분이었에, 졸업생 중 인터뷰 대상을 뽑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졸업생 중 성향이 반대인 두 사람을 선정해 동시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인터뷰이 정보

인터뷰이 이름	기수	기타
1번 인터뷰이	1기	활발하고 인간관계를 많이 맺는 편
2번 인터뷰이	1기	차분하고 조용하지만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맺는 편
3번 인터뷰이	2기	조용하고 인간관계를 많이 맺지 않는 편
4번 인터뷰이	3기	활발하고 인간관계를 많이 맺는 편
5번 인터뷰이	3기	활발하지만 깊은 인간관계를 잘 안 맺는 편

2) 인터뷰 질문

질문1: 속 이야기를 할 만한 친구가 있나?

질문2: 어떻게 그 친구를 갖게 되었나?(어떠한 과정을 통해 깊은 관계를 맺었는지)

질문3: 자신이 생각하는 소속감이란 무엇인가?

질문4: 소속감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질문5: 소속감을 느낄 때의 기분은 어떠한가?

질문6: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친구들은 다른 일반 친구들과 어떻게 다른가?

질문7: 반대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는 언제인가?

질문8: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소속감을 더 느끼는지,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소속감을 느끼는지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분석하고자 연구의 핵심인 인터뷰를 진행 하면서 녹음도 함께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마치고 난 후 다시 인터뷰 녹음본을 들으며, 인터뷰 내용을 직접 문서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녹취록을 바탕으로 인터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몇 가지를 선정하였다. 키워드를 선정할 때 특히 더 중요시 여긴 부분이 있다면, 학생들이 인터뷰 도중 사용한 학생 각자의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선정하게 된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설문지를 기반으로 3명의 재학생을 인터뷰 대상으로 정하였고,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2명의 졸업생을 인터뷰 대상으로 정하여 총 5명의 학생을 인터뷰 하였다. 더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을 인터뷰 하고 싶었으나, 인터뷰 대상을 정할 때에 그 대상의 심리 상태와 시간 등을 고려해야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리고 11명의 트리미학교 사례 연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평균 각각 5명 이상 인터뷰를 진행하였기에 한 사람에게 여러 번의 인터뷰를 진행할 시, 그 대상의 시간적 부담감과 심리적 부담감을 고려해야 했다. 일반 학교와는 달리 재학생의 수가 55명으로 적은 편이기에 실제로 여러명이 한 사람에게 여러번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기도 하다.

학교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다.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학교라는 곳은 교육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닌, 공동체도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것이 소수의 공동체 일 수도 있고, 다수의 공동체 일 수도 있다. 물론 학교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의 방향성과 추구하는 가치들이 중요하지만, 교육을 다루기 이전에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트리미학교는 일반학교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혁신적인 교육을 진행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트리미학교의 교육에 대해 궁금해 한다. 물론 트리미학교의 교육이 매우 큰 특수성이 있고 중요하지만, 그 트리미학교의 교육을 이루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인 중 하나인 공동체를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동체와 관련된 소속감 즉, 학생들이 느끼고 정의하는 소속감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의 답변 중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형성할 때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몇개 선정하였다.

1. 신뢰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학생들은 말한다. 대부분의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일반 학교와는 달리 공동체를 더 중요시 하는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학교에 입학한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재학생들 중 학교에 입학하기 전 자신이 기대한 만큼의 인간관계를 많이 맺지 못해 큰 실망감이 있었던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 학생들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공동체에 대한 실망감을 안기도 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배워가기 시작한다.

“내가 원래는 내 속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타입이거든.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도 별로 얘기를 안해. 그래서 잘 친해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학교 와서 조금씩 이제 뭔가 내 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런 마음의 문이 좀 열렸는데, 그렇게 막 조금씩 말을 시작한 거는 2학년 때부터 조금 시작이 된 거야. 1학년 때부터 조금씩 교류를 통해서 쌓아오고, 그런 사람들 중에 점점 더 나에게 믿을 만하고, 신뢰성? 신뢰? 신뢰를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2학년이 돼서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됐어.” (4번 인터뷰이)

신뢰관계는 많은 시간을 함께 할수록 더 많이 쌓이는 것 같다. 위에서 4번 인터뷰이가 응답해준 것과 같이 조금씩 교류를 통해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드리미학교에서는 발견할 수 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여러 공동체 활동을 하고, 함께 밴드도 해보면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된다. 여기서 밴드는 일반학교에 있는 ‘반’과 같은 개념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밴드는 일년마다 바뀌는 게 아닌 한 학기마다 바뀐다. 이것의 취지는 학생들이 더 많고 다양한 학생들과의 교류가 생기게 하기 위함이다. ‘드리미학교’라는 큰 공동체 안에 ‘밴드’라는 소수의 공동체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본교에서는 평일 아침마다 각 밴드 교실에서 밴드끼리 모여 큐티를 하거나, 목요일에 있는 다함예배 때 밴드 특송을 하거나, 밴드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밴드 나잇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활동들 외에도 본교는 드리미학교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활동을 더 많이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 인생을 살면서 나의 마음을 다 터놓고 할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좀..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 근데 일단 그런 사람이 나에게 한 두명이 아니라는 것과, 다수의 사람들과 알게 알게 친한 것 보다 소수의 사람끼리 친하면 깊게 친해서 오래가는 그런 사이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5번 인터뷰이)

위에서 5번 인터뷰이가 응답한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친구’를 만드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많이 말한다. 사람들은 ‘가짜 친구’가 아닌 ‘진짜 친구’를 원한다. 그 이유는 인생을 살면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해본다. ‘진짜 친구’가 있고 없과의 차이는 인생을 살면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드리미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가짜 친구’가 아닌 ‘진짜 친구’를 만들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내면적인 친구가 아닌, 그저 외면적인 친구관계를 많이 맺게 된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이 허락하지 않기에 많은 청소년들은 10명의 친구가 있다는 가정 하에 9명과 가짜 친구관계를 맺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짜 친구는 왜 만드는 것일까.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흔히들 말하는 ‘인맥 관리’를 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드리미학교 안에서도 일반학교와 같은 인맥 관리가 많이 발생할까? 우리는 이러한 의문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우선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서로의 신앙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며 서로에게 조언과 격려를 해준다. 이것은 일반학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풍경이다. 학생들은 왜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나가려고 노력할까? 그 이유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지난 드리미학교는 2020년에 ‘폐교’라는 아픔을 겪었다. 폐교의 원인은 공동체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었다. 대체 어느 학교가 공동체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학교의 문을 닫기까지 할까? 드리미학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실제로 폐교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공동체 덕분에 살아가고, 공동체 때문에 무너지는 이 드리미학교에서 학생들은 관계에 대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처음에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공동체를 그 시행착오들로 인해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고 노력하게 된다. 이것은 인맥 관리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2. 편안함/나를 보여줄 수 있는

대부분의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앞에서 말한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있는 대상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뢰도가 쌓여있는 대상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꾸밈이 없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몇 명의 학생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소속감을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꼭 보여주지 않아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소속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소속감.. 어..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 뭔가 내가 생각하는 소속감은 어떤 단체.. 그룹..? 그룹에 들어왔는데, 그냥 나의 모습을 내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거기에 있으면 행복하다, 편안하다 라는 느낌을 받고, 받고 있고. 뭔가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소속감이라고 했을 때. (.....) 이제 같이 다니면서 편안하게. 아무나 갑자기 걸어가는데 옆에 만나가지고 갑자기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럴 때도 뭔가 좀 여기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구나 라는 걸 느껴. 그냥 드림이 일상을 살면서도 뭐 가끔 살면서도 막 지나가면서도 같이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까먹고 두고 왔다고 치면 뭐 다른 사람이 “너 물건 두고 왔다.” 이렇게 챙겨준다던지 그럴 때도 있고 나 이거 좀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냐 했을 때 도와줄 때도 그때도 나는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구나 라는 걸 느껴.” (4번 인터뷰이)

의외로 소속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인다는 것을 4번 인터뷰이의 응답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로 인해 드림학교 학생들은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바쁜 학교 일정에 지친 상태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림학교 학생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칠 때는 잠시 인간관계를 쉬어가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관계를 놓는 것이 아닌, 쉬어간다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다. 학생들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소속감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소속감이 사소한 것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3. 내 편이다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친구들을 ‘내 편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그 곳의 사람들이 자신을 잘 알기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끔씩 쓴 소리를 해도 그 상대방과 앞으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그 쓴 소리로 인해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쓴 소리 안에 자신을 걱정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말들이 가끔씩 상처로 다가와도 기분이 좋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공동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서로가 서로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기에 이러한 현상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다.

“약간 채찍도 해주겠지만, 그만큼 위로도 받고 즐거움도 받고.. 소속되어 있는 그 곳의 사람들은 나를 잘 아니까? 조금씩은 몰라도 겪어는 봤으니까. 수업을 같이 하던, 방을 같이 하던 한 번씩 ‘아, 애가 이런 애구나?’라고 약간 좀... 아니까 내 편이다? 언제든지 나의 말을 들어주고.” (2번 인터뷰이)

“내가 예민해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냥 평소에 나한테 하던 말인 것 같은데도 나한테 갑자기 상처가 될 때가 있고 최근에. 그냥 좀 많이 “피곤하냐.” “잠 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너 야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상처인데, 뭔가 나를 걱정해 주는 거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진짜 최근에는.. 근데 솔직히 상처를 받는데도 너무 좋아. 상처를 받는 말인데 너무 좋아. (...) 아까 “너 야작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작하지 말라고. 밤샘어? 으윽.” 이게 또 말투가 “으윽~ 저거 또 야작하다가 밤샘네” 이런 느낌이어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걱정되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 너를 걱정하고 있다. “왜 밤을 새니 너 잠 좀 자.” 이거잖아. 그래서 저 말이 걱정을 해주는 말이니깐 기분이 너무 좋지.” (5번 인터뷰이)

어떻게 이러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일까?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어두운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감추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만큼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진실된 관계를 많이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외감/서운함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는 어떠한 때인지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 딱히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답변을 남긴 사람도 있다. 개개인이 생각하는 소속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다양했다. 또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 소외감과 서운함으로 이것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재학생이 느끼는 소외감과 졸업생이 느끼는, 느꼈던 소외감 역시 차이가 있었다.

“나는..ㅋㅋㅋㅋ 여기 왔는데 약간 방치되는 느낌. 홈커밍이라고 해서 왔는데 뭔가 초반에 뭔가 약간 그랬어. 오라고 해. 예를 들면 학교에서 오라고 해. 1기생을 불러. 그래서 왔어. 뭐지? 뭐할까? 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없어 막상. 그리고 우리 뭔가 졸업하고 되게 다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다 우리보고 하라고 해. 뭐 계획같은 거 짜는 것도 우리보고 다 계획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뭔가 약간 선택권을 주는 거는 좋지만, 살짝 그래.” (1번 인터뷰이)

“학교에 그냥 불러는 놓고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는 ‘니네들끼리 해.’ 이런 느낌. (...) 근데 나는 성격 자체도 그렇고 약간 상대방이 둘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살짝 나는 끼는 걸 잘 못해. 말 중간에 딱 ‘어, 나도.’ 약간 이런 얘기를 못해. 그래서.. 자발적으로 소외감 느껴..ㅋㅋㅋㅋ (...) 근데 나는 다수일 때는 애들이 놀잖아. 애들이 놀면 그냥 나는 구경해. 나는 그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좋거든? 솔직히 보는 게 좀 더 재미있어. 재미있는데, 한 편으로는 1번 인터뷰이 말대로 소외감이 좀 들 때도 있고.. 소수일 때도 솔직히 들어. 그니까 짝수가 아니라 홀수일 때. 근데 그 홀수 중에서도 둘이 친한데 내가 그런 상황에 끼었을 때..? 그럴 때 약간 소외감이 들 뿐이지.. 진짜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 경우의 수가 좀 많아.” (2번 인터뷰이)

위 인터뷰이들은 1기 졸업생이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낀 대부분의 소외감이 자발적인 소외감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질문 자체를 어려워 했다. 그 이유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을 때가 느낀 때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드리미학교의 첫 1학년으로 들어온 1기생들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처음이었기에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후배들은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학교에 대한 서운함이 있음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재학생들은 느끼지 못하는 졸업생만이 느낄 수 있는 서운함이라고 볼 수 있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기 보다는 서운 할때는 자기들끼리 놀고 있을 때. (.....) 못 느낀다기 보다는.. 뭐 진짜 서운해. 그리고 뭔가 이제 어찌다가 놀게 됐냐 이런식으로 물어봤을 때, 대답을 회피하면 그때서야 소속감을 못 느끼는 거지. “아, 애는 나한테 좀 선을 굿고 있구나.” 그냥 어디로 놀러 갔어? 재미있겠다 라고 개한테 연락을 보냈는데 “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이 오면 애는 그냥 아닌 거야. 나한테 애는 선을 그어놓은 사람인거야. 근데 그냥 내가 “다음에도 나랑 같이 놀자.”, “왜 나빠고 놀아?” 이런 식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집착을 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놀았냐고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는 개가 그냥 나한테 말을 해주기 싫다는 거잖아. 그거는 선이 그어져 있는 거지” (5번 인터뷰이)

“뭔가 확 그런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라는 적이 지금까지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 그런 자잘한 사건들은 있어도 그냥 잠시. 잠시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사람도 여기 안에 속해 있고, 나도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어.” (4번 인터뷰이)

위 인터뷰이들은 현재 드리미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다. 실제로 재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에게 선이 그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다거나, 상대방에게 벽이 세워져 있어 다가가지 못하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기생과는 또 다른 경우다. 이 ‘선’과 ‘벽’은 왜 생기는 것일까? 공동체와 함께 생활을 할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드리미학교에서 신뢰가 깨질 때는 언제인가. 이것은 드리미문화 중 올바르게 못한 문화로 자리잡힌 것 중 하나이다.

드리미학교 안에서는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물론 좋은 소통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소통도 많이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제3자가 알고 있는 경우가 특히 많다. 여기서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학생 수가 작은 특수한 상황과 기숙사 생활의 원인이 큰 것 같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소문이 많이 돌게 된다. 그 소문의 반은 거짓이고, 반은 진실이다. 왜 거짓된 소문이 나오는 것인가, 소문이 소문을 타서 진실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소문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고,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된 적도 있을 것이다. 이때, 학생들은 선을 만들어 굿게 된다. 일종의 자기보호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실제로 많이 형성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특히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들만의 이야기와 추억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들이 세워놓은 ‘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더 높아지고 그 안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4. 정의할 수 없는

소속감이 정해진 수칙같은 게 아니라서 소속감을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그리고 소속감이라는 개념이 되게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동체성과 마찬가지로 소속감도 결국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속감이라는 것 자체가 다같이 있을 때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과 단 둘이 있을 때에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소속감을 느끼기 힘든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소속감은 그 상황에 맞춘 일종의 자신의 판단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속감이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냥 약간 그때 그때 따라서 그냥 느껴지는 기분을.. 그냥 뭐 친구랑 같이 있어서 즐겁다 라기 보다는 공동체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소속감이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야. (.....) 소속감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사실.. 소속감이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 얘기해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편안해, 즐거워 그런 걸 타인이랑 같이 있을 때 느끼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소속감을 떠나서 친구랑 둘이 있을 때도 느낄 수 있고, 소속감을 느끼기 힘든 공동체랑 있을 때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걸 그냥 느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판단이 아닐까? (.....) 그런 거지. 약간 장소나 그 분위기나 그런 흐름, 느낌? 서로간의 약간 생각하는 것들이 겹쳐서 그냥 그런 거라고 하자 라고 약속 수준으로... 사실 이거를 좀 특별한 감정, 생각으로는 느끼지 않아.” (3번 인터뷰이)

IV. 결론

본 연구는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소속감은 어떻게 형성이 되며, 그 소속감이 공동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시작하게 되었다. 일반 학교와는 다른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의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져본다. 우선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충분히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냥 일반적인 친구관계가 아닌, 자신의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관계를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많이 형성하고 있다.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에서 신앙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말하는 속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과 관계적인 고민 등 자신의 속 안에 있는 고민을 스스로 없이 말할 수 있는 친구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1기 졸업생과 현재 학교를 재학 중인 2,3,4기생이 느끼는 공동체성과 소속감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1기생은 처음 학교에 오게 되었을 때, 선배와 후배가 없이 1년의 시간동안 동기끼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구 기숙사의 환경 요인도 있었고, 외출증을 내고 외부의 놀러갈 수 있었다는 것과, 전교생이 다같이 외부에 나가는 일이 많았던 것도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와는 다른 좀 더 자유로운

학교생활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기생이 첫 학기 첫 학년으로 들어왔을 당시에는 현재와는 다르게 규정이 엄격하지 않았다. 자유롭고 열려있는 학교의 분위기 덕분에 1기 졸업생들은 1학년 때를 많이 그리워하기도 한다. 1학년 때의 그 추억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아직도 가끔가다가 한 번씩 생각이 나기도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면에 2,3기생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1기생에 비해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지 못하였다. 2기생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첫 학기를 통째로 온라인으로 보냈으며, 학교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교라는 아픔을 겪었기에 공동체가 빚어지고자 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그리고 특히 2기생들은 신앙과 삶의 급격한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이 있었다. 너무 급격한 성장이었기에, 우리는 서로를 의심했고 선뜻 신뢰하지 못하였다. 그래도 3기생부터는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고, 그것을 통해 공동체가 조금 더 빨리 형성이 되었다. 이것을 보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과 소속감은 환경의 요인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드리미학교는 이성간의 문제를 까다롭게 보는 편이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이성간의 연애를 할 수 없고, 남녀 단 둘이서만 한 방에 같이 있는 것, 배움의 목적이 아닌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것 등 이성과 관련된 규정이 다소 엄격한 편이다. 이것이 공동체를 형성할 때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킨다는 생각도 든다. 따지고 보면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깊은 관계를 대부분 동성끼리만 맺는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한 엄격한 규정 때문이다. ‘폐교’라는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생긴 규정들이 관계를 맺을 때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성끼리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학교 특정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이 규정 덕분에 지금까지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도 알 필요가 있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소속감은 하나로 정의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소속감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도 정의를 하기 어려울뿐더러, 학생 개개인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기수별로 느끼는 공동체와 소속감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소속감을 형성시키기 위해 고려해야할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그것이 완벽한 신뢰관계가 맞는가.

둘째, 관계에서 ‘선’과 ‘뉘’이 생기지는 않았는가.

셋째, 학생 개개인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넷째, 정말 사소한 것에도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다섯째, 내가 그 친구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드리미학교 학생들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도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의 드리미학교 공동체가 학생들로 인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7. 연구7: 드리미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성장을 인지하며 살아가는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성장이라는 주제에서 인지는 매우 큰 작용을 한다. 학생이 성장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자기주도성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많은 학교가 자기주도성을 강조하고 학생에게 여러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만큼 그들과 다른 교육방식을 추구하는 기독교대안학교인 드리미 학교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기주도성의 장을 마련해주는가? 그리고 학생들은 얼마나 자신의 성장을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드리미 학교의 성장 분석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마지막으로 드리미학교 교육의 특성상 자기주도성이 강조되는 점을 보았을때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을 얼마나 인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드리미학교 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드리미 학생들은 자신의 성장을 인지하며 살아가는가?
인지하며 살아가한다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가?

3. 연구문제 개념설명

가. 드리미학교 자기주도성의 중요성

이번 장에서는 드리미학교에서 자기주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참조하여, 이론적 배경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드리미학교의 자기주도성은 하나하나의 시간에 스며들어 있다. 박한길 드리미학교 이사장님은 드리미학교의 자기주도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이 없는 학교”이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선생님이 무엇이 필요하며, 사감선생님이 뭐하러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학교설립 과정에 참여하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신다. “우리 학교에서 자기주도성 교육은 따로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있지 않잖아, 우리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주도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나는 봐” 이처럼 드리미학교의 자기주도성은 일부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 전반에 스며들어있는 교육철학이라고 느껴진다.

자기주도성이라는 교육철학이 담겨있는 교육과정을 살펴보자면, 핵심 교육과정인 3P선택활동, 창의활동, 그리고 생활교육, 학생자치기구까지 전반적으로 자기주도성에 맞춰져있다. 선택활동은 선생님이 만드신 수업에, 선택해서 참여하는 활동이고, 창의활동은 선택활동을 기반으로 한

학생개설수업이다. 이는 한 학기의 수업을 학생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수업이다. 생활교육 또한 자기주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앞서, 이사장님께서 사감이 필요없다고 하신 말씀이 실제로 지금 학생사감이 운영되고 있다.

나. 신앙적 관점에서의 중요성과 의미

드리미학교의 교육은 성경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자기주도성 또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중요성과 의미를 갖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드리미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한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해본다.

“그 삶의 주체가 되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냐면, 생각을 할 수 있어.” (11번 인터뷰이)

이후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학교교육을 통해 삶의 주체가 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졸업 이후의 삶에서 주도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앙인으로서 주도성을 가지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관련해서 다른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해보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잖아.” (10번 인터뷰이)

위 내용에 따른 성경구절을 참조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위 내용처럼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드리미학교의 자기주도성이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것처럼, 자기주도성 즉 자율을 강조하는 대신에 책임도 함께 강조한다. 자율에 맞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책임의 기준을 드리미학교는 성경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기주도성 교육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가. 인터뷰이 정보

인터뷰이이름	기수	기타
1번 인터뷰이	1기	드리미학교 학생회 직책, 자기분야 계발, 공동체, 신앙
2번 인터뷰이	1기	드리미학교 학생회 직책, 자기분야 계발, 공동체, 신앙
3번 인터뷰이	2기	드리미학교에서의 주도성 성장으로 다양한 분야 경험 및 진로 계발
4번 인터뷰이	2기	드리미학교에서의 신앙 성장이 동네 교회에도 선한 영향을 미침
5번 인터뷰이	3기	신앙과 삶의 변화, 자기분야 계발
6번 인터뷰이	3기	신앙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함
7번 인터뷰이	4기	드리미학교 신입생, 3P기초소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함
8번 인터뷰이	4기	드리미학교 신입생, 신앙과 삶의 태도에 대한 변화
9번 인터뷰이	2기	다양한 분야 계발 및 성장
10번 인터뷰이	선생 님	(조영민T) 대학생 때부터 주도성으로 활발하게 살아오심
11번 인터뷰이	선생 님	(유세리T) 주도적인 신앙인을 강조하심

나. 인터뷰 질문

첫째, 본인의 성장에 대한 경험을 알려주세요!

둘째,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나요?

3. 분석방법

연구문제에 따라, 드리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고르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학년별로 성장을 이루어낸 경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녹취를 통해 전체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내용이 공통되는지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좋은 흡과 정원사’

좋은 흡은 드리미학교의 환경을 뜻하고, 정원사는 학생 본인을 뜻한다. 드리미학교라는 좋은 환경에서 정원자로서 자신의 씨앗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과정은 드리미학생들은 자신의 성장을 인지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드리미학교가 본인의 성장에 있어서 어떤 환경이 되었으며, 본인의 성장에 대한 노력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아래는 해당 주제에 대한 유의미한 녹취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교육적 성장

먼저 교육적 성장으로, 드리미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어떤 배움의 성장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먼저 ‘음악’ 분야에서의 교육적 성장이다. 드리미학교는 일반 학교와 비교하여,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그만큼 학생들의 이용도도 활성화되어 있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드리미 예배팀에 악기로 섬기는 학생들의 수를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2022년 한해, 총 12명으로 전교생의 약 22%의 학생들이 악기로 섬기고 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2개 이상의 악기를 다룬다는 것도 고려해보면, 악기 분야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악기 외에 싱어로 섬기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35명으로 전교생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예배팀에 음악 분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위 학생들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드리미학교에서 처음 악기를 배웠거나, 발전시키는 경험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서 인터뷰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비트박스)2학기 때 정말 본격적으로 내가 비트박스를 제대로 해보고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내가 비트박스를 창의활동으로 열어.” (1번 인터뷰이)

“(베이스 기타) 그때 처음 입문했고, 찬양팀하면서 점점 늘었던거고.” (1번 인터뷰이)

“(신디 피아노) 신디. 신디 진짜, 나 신디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 (5번 인터뷰이)

“(드럼) 제 성장에 대한 경험이지, 음 먼저 가장 잘 드러나보이는게 악기. 드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수업을 통해서 드럼을 처음 접하고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연습을 했어요.” (3번 인터뷰이)

“(첼로) 가장 큰 경험은 한 달란트 라고 합창을 했었는데, 귀한 기회로 첼로를 하게 됐어요. 첼로를 막 제대로 배워본 것도 아니고. 근데 결국에는 했거든요. 결국에는 아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정성을 기울이면, 이런걸 얻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귀하게 쓰일 수 있구나라는 경험이 그 이후에도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게 만들었죠.” (2번 인터뷰이)

2. 비교과활동 입문 및 발전

일반 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교과과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그러나 대안교육에서는 문제해결 수업, 체험학습 등의 비교과활동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며, 그에 따른 교육을 해나간다. 따라서 대안학교에서 비교과활동의 성과는 굉장히 큰 입지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드리미학교의 비교과활동은 어떠한지, 이를 경험한 학생들이 어떤 성장을 성장을 가졌는지, 인터뷰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팀프로젝트) 시험을 보고 강의식으로 수업이 되는 게 아니다보니까, 팀플을 하다보면 나 스스로를 너무 직면하게 되는거지.” (2번 인터뷰이)

“(인디자인) 그래서 처음에 이상한 게 있고, 용어가 있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용어도 있고 하는데, 선생님의 지도하에 열심히 했어! 너무 재밌는거야. 근데 재밌는 게 내가 직접 내 빔을 책자를 꾸미고,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너무 재밌는거야. 또 결과물도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꼭 봐 !!” (7번 인터뷰이)

“(카페)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커피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음료를 직접 만드는 것도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 또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일단 맛을 봤을 때 괜찮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9번 인터뷰이)

위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보면, 드리미학교의 환경은 교과활동을 벗어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선택/창의활동, 찬양팀, 동아리 등을 통해 많은 교육적 경험을 얻어냈다. 물론 정원사로서 좋은 흙에 새로운 씨앗, 그리고 원래 심겨진 씨앗을 열심히 키워내는 노력이 함께되어, 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본인의 진로를 꾸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앞으로 좋은 취미로 가져가겠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3. 개인적 성장

다음은 개인적 성장에 대한 내용이다. 앞서,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성장을 살펴보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학생들은 학교교육과정에 맞추어, 성장을 하기도 하지만, 짜여진 교육과정 외에 일상적인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성장을 하기도 한다. 드리미학교의 학생들은 어떠한 개인적 성장을 이루었는지, 아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시간관리) 네 성장한 것 같습니다.. 시간관리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관리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투두리스트, 스케줄러 이런 것들 만들어주시기 전에 혼자 그냥 빈노트에다가 뭘할건지, 그리고 뭘했는지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하는데 할애한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낭비한 시간을 얼마였는지, 뭘했는지, 뭘느꼈는지, 내일은 뭘 더 하고싶은지, 아쉬운건 뭘지, 좋았던건 뭘지, 감사한건 뭘지를 꽤 오래 기록했어요. 1학년때” (2번 인터뷰이)

“(규칙적인 생활) 여기서 저한테 크게 작용했던 게 삶의 패턴인 것 같아요. 전에 고등학교 다닐때는 되게 들쭉날쭉하게 자고, 왜냐면 공부도 해야하고..작년에는 시험기간 되면 진짜 4시간씩자고 못 자면은 2시간씩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드리미 학교에 들어와서 빗음기간동안 과제도 별로 없고 해서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원래는 평소 같았으면은 새벽 4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거이 일찍 자려고 해서 1시 넘어가기 전에는 자는 것 같고 항상 주말에도 8시쯤에는 일어나요.” (8번 인터뷰이)

“(신앙활동) 이 학교에 있으면서 말씀을 되게 접하게 되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시간들 덕분에 나도 모르게 점점 변화해 간 것 같아요.” (6번 인터뷰이)

“(합창반주) 리허설 직전까지 계속 틀리고 그랬었던 말이야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이라는 걸 느꼈어요.” (5번 인터뷰이)

“(신앙태도) 신앙을 대하는 태도. 이게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옛날을 비판하자면, 속세에 찌들어서..ㅋ 솔직히 밖에서는 일반애들이랑 똑같은 수준이었고 ... 여기와서 말씀들을 듣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라든가 예배에 대한 태도라든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던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 같이 기도를 해주고 그랬잖아요. 복음사경회 때도 하고..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 그 외식하는 기도가 이제 보여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이방인의 기도가 구구절절 자기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딱 저인거예요. 모든 예배, 신앙적인 부분에서 전 보다 더 진지하게 임하려고 해요.” (8번 인터뷰이)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성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뒤에도 드리미학교라는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장이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IV.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드리미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말로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드리미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의 성장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대안학교의 교육성과라고 볼 수 있는 자기주도성에 대한 평가를, 색다른 질문으로 해보았다고 느껴진다.

이번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교육과 삶의 통합’이다.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 따로, 교육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교육대로 가르치는 것이 삶이 되었고, 그 두개가 통합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이유는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에 맞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는 성장한 것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고 나누고자 하는가 이다. 드리미학교는 단순히 자기주도성의 성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리미학교에서 어떤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할것인가 또한 드리미학교만의 중요한 교육성과 중 하나일 것이다.

이제는 ‘기독교교육과 삶의 통합’에 대한 연구를 바라보아야 한다.

V. 참고자료 및 부록

김소영(2010). 학교참여가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공교육 강화 정책방안 연구. 한국공공정책학회. 17(1).

김영식, 이호준(2021). 고등학생의 학교 참여 예측 요인 탐색: 학생회 활동 및 학교 경영 참여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42(1).

김수홍(2011). 한동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질적연구. 석사논문